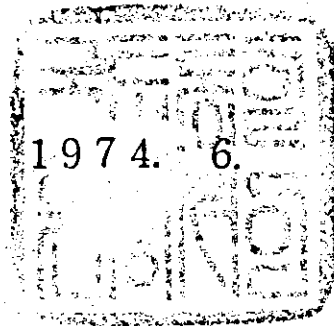


中·蘇에 대한 和解心理戰 展開 方案



553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6.

研究機關： 朝鮮日報社 統韓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梁 好 民

目 次

第一部	3
1. 对中·蘇 關係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特殊한 位置	5
2. 多極化時代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平和問題	8
第二部	37
1. 中·蘇 兩國의 「이데올로기」와 國家利益	39
2. 对中共 交戰狀態의 終息	47
3. 하나의 試案 - 白翎島等 西海五個島嶼의 平和利用方案	54
第三部	65
1. 对中·蘇 接近의 戰略的 目標	67
2. 國交以前의 交流試函	79
3. 間接的 交流의 方案	86

第 一 部

1. 対中・蘇關係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特殊한 位置
2. 多極化時代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平和問題

一. 對中·소關係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特殊한位置

1960年代以來로 國際政治의 構造는 兩極化에서 多極化로 변해왔다. 이 多極化現象을 촉진한 要因으로서는 人類를 絶滅의 위기로 몰아온 熱核武器의 可恐할 발달과 그의 擴散, 「이케올로기」紛爭에서 國家的 對立關係에 가지 惡化된 中·소의 歷史的 對立, NATO陣營(특히 美·仏)의 分裂, 日·西歐 등 敗戰國들의 經濟大國化, 非同盟國들의 抬頭와 그 發言權의 強化等を 들 수 있다. 이러한 國際關係의 構造的 變化는 韓半島의 情勢에도 深대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으며, 美國은 「니슨」時代로 들어서면서 이 地域의 平和를 이룬바 「4強」(美·日·소·中共)의 勢力均衡과 相互協力에 의하여 보장한다는 構想을 부각시켜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러한 構想은 아직까지는 모색단계에 있으며, 韓半島에 어떤 形式으로든 介入되어 있는 美·日·소·中共의 4強國에 具體的인 合意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核戰爭이 交戰國들의 共同滅亡으로 認識되고, 따라서 삶든 죽든을 막론하고 平和共存과 相互協력을 大國들이 다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唯一한 脫出口로 단 들고 있는 國際政治의 限界狀況에서 統一에 先行한 韓半島의 平和保障問題는 이 나라들의 共同課題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의 韓半島의 國際關係는 南에서의 韓國·美國·日本의 3角關係와 北에서의 北韓·소聯·中共의 3角關係, 그리고 韓半島 밖에서의 美國·日本·소聯·中共의 4角關係를 基軸으로 하여 형성되고

다. 이 세 範疇의 關係는 各各 相互作用下에 있으며 어느 하나도 餘他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고 獨自的으로 展開될 수는 없다. 여기서 특히 重要的 것은 美·소·中共의 3角關係다.

이 세 나라는 世界의 3大核巨國이요, 美·소는 國際的인 超強大國이다. 그리고 이 3大核巨國은 직접 韓半島에 軍事的으로 介入되어 있다. 즉, 美國은 大韓民國과 1953年에 체결한 「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하여 韓國의 軍事同盟國이 되었고, 소聯과 中共은 1951年 7月 각각 北韓과 체결한 友好·協諒 및 互相援助에 관한 條約」이란 이름의 軍事條約에 의하여 北韓의 軍事同盟國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美·소·中共이라는 3大核巨國이 正式軍事條約에 의하여 韓半島에 同時에 깊이 關聯되어 있음을 端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런 地域으로서 韓半島가 世界에서 唯一한 地域이다. 韓半島의 마찬가지로의 分治國인 獨逸의 경우 西쪽은 美國의, 東쪽은 소聯의 軍事同盟國이지만 中共은 전혀 介入되어있지 않다. 越南半島의 경우 美國의 參戰, 美·소의 支援下에 過去 10年동안 치열한 戰爭을 겪는 過程에서도 美·소·中共은 越南, 越盟 어느편과도 軍事條約을 체결한 일이 없다. 美·소·中共의 3大核巨國이 각각 軍事同盟關係에 의하여 韓半島에 介入되어 있다는 特殊한 狀況은 韓半島가 軍事的으로 위험하며, 그러므로 世界平和를 위하여 극히 重要的 地域이라는 특징을 지우고 있는 것이다.

國際關係에서 韓半島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特色은 北韓과 中·소의 特殊 關係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地政學的으로 볼 때 北韓의 對中·소關係는 余他의 共産主義國家들의 中·소關係와는 基本的으로 다르다. 北韓은

中國大陸과는 8百「마일」에 이르는 國境을 接하고 있고 소聯과는 11「마일」에 걸쳐 國境을 接하고 있다. 外蒙古(蒙古人民共和國)를 除外한다면 北韓은 共產圈內에서 中·소의 共產巨國과 동시에 接壤하고 있는 唯一한 地域이다. 어느곳에서를 막론하고 國家들 間의 地理的關係가 곧 政治的關係를 規定해 왔다는 것은 國際政治에서는 普遍的 現象이다. 韓半島의 地政學的 條件은 지난 數世紀 동안 關係國家들 사이에서 착잡한 政治的問題를 일으켜왔다. 韓半島가 國際的 權力政治에 휩쓸려 들어간 19世紀末葉以來로 「滿東의 발칸」으로 認識되어 온 것은 現時點에서도 극히 注目할 만한 事實이다. 東北亞細亞 3大強國에 벌어진 淸日戰爭과 露·日戰爭은 모두 韓半島에서 치부어진 戰爭이었다.

第2次世界大戰의 緒戰이었던 中·日戰爭에서도 日本帝國主義는 韓半島를 兵站基地로 中國大陸을 侵攻했고 大戰의 終結에 있어서도 소聯軍은 역시 韓半島에서 日本軍을 最後的으로 격멸했다. 이것은 그만큼 韓半島가 중요한 軍事的 戰略基地임을 뜻하는 것이다. 몇 나라가 한 地域에 接壤하고 있다는 條件은 이 나라들로 하여금 모두 第1次的으로는 自國의 安全保障이라는 見地에서 그 地域을 重要視하게 한다는 것은 一般的인 歷史的 慣例이다. 1945年以後로 分斷된 韓半島가 새로운 國際緊張의 焦點이 되면서 소聯과 中共은, 그리고 뒤에서는 日本도, 韓半島와의 關係에서 自國의 安全保障을 예민하게 意識해 왔던 것이다. 46年3月20日 美·소共同委員會의 開會席上에서 소聯側代表 「스타코프」將軍은 다음과 같은 意味深長한 發言을 했다.

……소련은 朝鮮이 소련에 友好的인 진정한 民主主義 獨立國家로 되며, 따라서 소련은 侵攻하는 基地가 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關心을 가지고 있다. 1)

「소련에 友好的인 진정한 民主主義 獨立國家」란 「스탈린」主義에 있어서는 結局 소련의 衛星國家라는 「이데올로기」의 策略이 숨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스타코프」의 發言에는 소련의 安保에 대한 考慮가 반영되어 있음을 看取할 수 있다.

한편 中共도 北韓의 奇襲攻擊에 의하여 발발한 韓國動亂에의 參戰理由를 自國의 安全保障과의 關係에서 正當化했던 것이다.

50年 11月 4일에 發表된 中國各 民主黨派의 抗美援助에 관한 聯合宣言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朝鮮은 비교적 적은 나라이지만 그 戰略的 地位은 극히 重要하다. 美帝國主義者의 朝鮮侵略의 目的은 주로 朝鮮 그 自体에 있는 것이 아니라 日本帝國主義者가 과거에 實行했던 것처럼 中國을 侵略하는데 있다. 歷史의 事實은 朝鮮의 存亡이 中國의 安危와 밀접한 關係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찍부터 가르치고 있다. 2)

傳統的으로 韓半島의 地政學的 條件은 中國大陸 및 「로시아」와의 重要한 政治關係를 수반해 있다. 韓半島와 中國을 연결한 累千年의 착잡한 政治·文化的 유대는 널리 알려진 바로서 여기에서 再論할 必要가 없다. 韓半島와 「로시아」와의 關係를 고찰한다면 그 淵源은 멀리 19世紀 中葉에 까지 소급되리 만큼 長久한 것이다. 1850年代에 咸鏡道 東北部의 不毛地帶에 거주하던 韓人屢

민들은 耕作할 땅을 찾아 帝政「로시아」의 沿海州로 移住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뒤에도 이들 先驅者들의 뒤를 따라 많은 農民들이 단순히 經濟的 理由 때문에 合法的, 非合法的으로 沿海州로 들어갔다. 그런데 1910年 韓半島가 日本帝國主義者들에 의해 占領되자 約8千名의 政治亡命者가 韓-露國境인 豆滿江을 건너간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3) 이것을 起點으로 하여 經濟的移民은 政治的移民으로 바뀌어 갔다. 그리하여 東「시베리아」에는 高度의 政治意識을 가진 韓人部落들이 出現하게 되었고, 이 韓人村들은 韓人革命家들에게 政治活動과 生計의 根據地를 제공하게 되었다. 1929年까지에는 즉 朝鮮王朝가 崩壞한지 20年後에는 韓人移住者의 總수는 22 ~ 25 萬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4)

이러한 狀況에서 「로시아」의 「볼셰비키」革命의 影響을 받으면서 最新共產主義運動이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것은 決코 우연이 아니다. 韓人社會黨으로 알려진 政治團體가 1918年 6月 李東輝에 의하여 조직되었는데 그는 당시의 가장 강건하고 탁월한 革命家였다. 그는 運動本部를 上海로 옮기고, 그 自身 1919年 3月에 上海에서 수립된 大韓臨時政府의 總理職을 맡은 후 黨名을 高麗共產黨으로 改稱했던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政治團體가 1919年 9月 「이르쿠츠크」共產黨 韓人支部로서 조직되었다. 이의 組織者들은 金哲勳 吳河熱과 같은 「로시아」化한 韓人들이었다. 이 組織은 뒤에 와서 소위 「이르쿠츠크」派로 불리웠고, 李東輝의 「上海派」와는 「이데올로기」的 差異, 「레닌」으로부터의 支

特獲得 競争 때문에 격렬하게 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兩派의 敵對關係는 解放以後까지도 國內共產主義運動에 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 5)

1930年代에 이르러 소聯·日本間의 軍事的 緊張은 소·滿國境에서 激化되고 있었다. 日本軍國主義者들은 滿洲에 居住하는 朝鮮人들을 「皇國臣民」으로 教化하여 利用하려 들었다. 「스탈린」은 「시비리아」에 居住하는 少數 朝鮮民族이 日本과 結탁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에서 加혹한 對策을 取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는 1937年 보렛동안 沿海州에 定着해 온 朝鮮人 約 20萬名을 中央亞細亞로 추방했던 것이다. 6)

이 強制移動의 이야기는 아직도 斷腸의 感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伝說로 남아 있다. 이들은 家畜과 같이 貨物車에 실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크스탄」의 荒涼한 草原地帶로 옮겨졌고 거기서 오직 生存을 위하여 荒蕪地를 개간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이들의 目不忍의 慘狀과 막대한 희생에 관한 「소베트」當局의 公式記錄이란 없다. 이들 中의 상당수는 終着地까지의 艱難 旅路에서 死亡했고, 一部는 出發時까지 集合場所에 도착지 못하자 被殺되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그 煉獄과 같은 試練期間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村落을 일으키고, 불철주야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는 裕足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祖國과는 너무나 멀리 격리되어 있었다. 時間이 흐르고 世代가 바뀔에 따라 이들 中央亞細亞의 韓民族은 점차로 「로시아」化 되어 갔다. 한 「소베트」의 記錄

제 이하년 1959年 現在로 全羅北道의 韓人의 數는 約 32 萬名으로

7)

추산되고 있다.

初期의 先區的 移民들의 子孫들은 全羅에서 成長하고 忠實한 全

新民斗 兪員으로의 教育斗 訓練을 受하였다. 45年 8月以後 韓軍軍校斗 北

道 仁川의 靑島系 縣市市民들의 相當數는 黨組織委員으로의, 行政官으로의,

經濟學士으로의, 技術者으로의, 文化宣傳員으로의 北韓으로 移어 來던 것이다.

이 靑島系部들은 北韓의 「스탈린」化를 促進하러의 기여했고, 이들 中의 領袖的

人物은 그 中 勞動黨內에서 世稱 「五聯派」를 구성했던 것이다.

한편 1905年 日韓國의 日本帝國主義의 豫備國으로 전락한 이래

로 광대한 中國本土와 滿洲는 韓國 民族主義者外 共產主義者들의 專

有舞台가 되었다. 都市와 村莊들은 大小를 막론하고 韓國人 革命

黨들에게 避身處를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避身處에서 보호를 받

으면서 韓國青年들은 中國의 獨立軍 또는 遊擊隊에 조직되어 日帝

義勇軍에 가담했다. 이 抗日戰爭은 長久한 韓國의 民族的 獨立運

動史의 重要內容을 形成하고 있다. 中·日戰爭으로 日本軍의 勢力

이 全中國으로 侵入해 들어오자 韓人抗日武裝部隊들은 北滿·重慶·

西安·延安地域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年 도취에

도취해 共產主義의 영향을 받은 약간의 韓人遊擊隊員들은 延安에서

活動하여 朝鮮義勇軍으로 組織되었는데⁸⁾ 이것은 毛澤東의 비호하

의 있던 朝鮮獨立同盟의 武裝軍으로 되었다. 이 集團은 45年

가을 北韓으로 歸國하면서 勞動黨內에서 소위 「延安派」를 형성했

던 것이다.

以上 韓國의 歷史的 事實들이 明示하는 바는 五聯과 中共은 다

같이 解放以前の 時期에는 朝鮮共產主義者들에게 軍事的 根據地를 제공했고, 解放直後の 時期에는 두 나라는 各自 國領土에서 혼란한 政治指導勢力을 派北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勞動黨의 建設者로 된 것이다. 世界의 어떤 共產黨도 蘇聯 및 中共의 두 나라와 同時에 이렇게 뿌리깊은 關係를 맺고 있는 例가 없다. 이 點에 있어서도 北韓은 中·蘇關係內에 獨特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對中·蘇關係의 脈絡에서 北韓이 지니는 또 하나의 重要하고도 刮目할만한 特性은 金日成의 2重的 地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金日成의 經歷은 아직도 많은 部分이 감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北韓의 應用版金日成傳記들에 의하면 그는 1912年 4月 15日 金聖柱란 이름으로 平壤近郊 萬鏡臺에서 出生했고, 14歲에 滿洲 吉林으로 가서 그곳의 梳文中學校에 入學했으며 그 地方의 共產主義 青年同盟에 加黨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후 31年 8月에는 「共產黨」에 入黨했다고 한다.⁹⁾ 北韓의 出版物들은 그 「共產黨」이 어느 나라의 共產黨인지를 밝힌 일이 없다. 그러나 그 共產黨이 바로 中國共產黨이었음은 疑心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30年 5月以後 滿洲에는 朝鮮共產黨의 組織體라고는 이미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朝鮮共產黨 滿洲總局이 亡命黨員들을 위한 地方支部로써 吉林省에 조직된 것은 26年 5月の 일이었지만, 滿洲總局은 「콤민테른」의 一國一黨原則에 의하여 30年 3月に 解体되고 在滿朝鮮共產黨員들은 中國共產黨內에 흡수되었던 것이다. 北韓의 黨宣傳員들은 金日成을 朝鮮의 가장 「自主的」이고 「愛國的」인

民族英雄으로 禮讚할 뚜렷한 目的에서 그의 中國共產黨 入黨事實에 關해서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金日成은 中國共產黨의 한 黨員으로써 同黨 指揮下의 東北抗日聯軍에 가담하여 遊擊戰의 經驗을 가진 것은 많은 資料에 의하여 立證되고 있다. 다만 問題는 그가 당시 抗日聯軍 第2師長이었던 金日成과 同一人物이나 아니냐에 있다. 東北抗日聯軍은 韓·中兩國 人의 抗日混成遊擊隊였다. 金日成이 어떠한 地位에서든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그의 闘爭經歷이 中國共產黨組織內에서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日本軍의 「討伐作戰」이 一切의 在滿抗日武裝勢力에 對해 強化되자 金日成은 그의 殘餘部下 몇名을 거느리고 1941年 「시베리아」로 越境했다.

소聯軍 當局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소·日戰爭에서 韓人 「게릴라」部隊를 韓半島에 침투시켜 日本軍을 교란시킬 目的下에 「하바롭스크」附近에다 한 野戰學校를 세우고 隊員들을 訓練하고 있었다. 金日成은 入「소」後 여기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소聯 領內에 거주하는 동안 그는 어떤 形式으로든 소聯軍에 入隊하고 소聯共產黨의 教育을 받았을 것임은 틀림없다. 11)

그러나 北韓에서 發刊된 지금까지의 資料들은 그의 入「소」事實에 關해 일체 言及을 回避하고 있다. 그것은 그의 在 소 經歷이 「絶世의 愛國者」로서의 그의 映像造作을 훼손할 것이기 때문이다. 45年 8月 소聯軍이 北韓으로 進주하는 뒤를 따라 그는 「스탈린」의 忠實한 部下로서 소聯軍服을 입고 平壤으로 왔다. 「폴랜드」의 「비에부트」 東嶺의 「올부리허트」, 「헝가리」의 「라고

시」,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 등이 모두 그와같은 人物들이지만 「스탈린」은 소聯에서 政治·軍事訓練을 받은 이들을 權力의 頂上에다 앉히고 東歐와 北韓의 鐵拳的 衛星化政策을 強行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金日成도 初期數年동안은 党内에서 「소聯派」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金日成이 過去에 中國共產黨과도 소聯共產黨과도 깊은 關聯을 맺었다는 事實은 그가 뒤에 와서 北京과도 「모스크바」와도 동시에 2重的 同志關係를 주장할 수 있는 位置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오늘 世界의 어떤 共產黨 國家에서도 그러한 2重的 地位를 源泉的으로 享有하는 最高位權力者는 金日成 1人밖에는 存在하지 않는다. 이 點은 北韓의 中·소關係에서 看過할 수 없는 政治的 特殊性이 아닐 수 없다.

北韓의 共產政權은 또한 다른 側面에서도 中·소의 두 나라와는 獨特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北韓政權은 소聯軍事力의 對北韓進出의 結果로써 出現했으며 中共軍의 韓國戰介入에 의하여 그 存在가 유지 되었다. 즉, 北韓은 소聯軍에 의하여 日帝의 強占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소聯軍政當局의 政策에 의하여 오늘의 勞動黨과 「共和國政府」는 建立되었다. 소聯軍政當局의 絶對的支援이 없었다면 金日成이 黨과 「政府」의 頂上을 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共產政權은 韓國戰爭當時 「中國人民志願軍」의 막대한 희생에 의하여 絶滅의 찰나에 救出되었다. 따라서 金日成은 中·소兩國의 恩德에 의하여 現在의 地位를 享有하여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國際的 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聯軍은 3年동안(1945 ~ 48年), 中共軍은 8年동안(1950 ~ 58年) 北韓

에 주둔했던 것이다. 그 위에 미·소 두 나라는 戰後의 復旧 建設을 위하여 金日成政權에 대해 다액의 經濟-軍事援助를 제공해 왔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는 꼭 같은 政治的 發言 權을 가지고 北韓의 現在 및 將來問題에 介入할 수 있다. 世界 共產圈 全體를 통하여 같은 獨特한 存在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二. 多極化時代に 있어서 韓半島の 平和問題

이상에서 지적한 北韓의 對中·소關係에서의 特殊性은 中·소 紛爭이 격화됨에 따라 金日成政權을 난처한 立場으로 몰아 넣었다. 그들은 北韓이 「모스크바」 또는 北京 어느 한쪽에 親近하는 政策은 곧 다른 편에 대한 背信이요, 準敵對的 行爲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兩者와 다같이 同時に 同志的 유대를 유지한다는 것도 中·소의 치열한 「이데올로기」論爭과 共產圈에 대한 主導權競争속에서는 至難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이 두 巨國 사이에서 극히 流動的이요 機會主義的인 態度를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56年 2月 즉, 소련 共產黨第20次大會에서의 「스탈린」批判을 계기로 中·소 「이데올로기」紛爭이 야기된 時点에서 부터 66年 8月까지의 사이에 그는 親소에서 中立, 中立에서 親中共, 親中共에서 自主路線으로 네차례나 立場을 바꿨다.

즉, 56年에서 59년까지는 親소, 親中共政策을 同時に 追求하면서도 59年 소련 共產黨 第21次大會에서는 明確하게 「호루시초프」의 黨路線을 支持했다. 그리고 61年 소련 共產黨 第22次大會에서 中소의 分裂이 白日下에 노정되자 金日成은, 두나라에 대하여 다같이 好意를 표시하면서도 中立的 立場을 擧하고 있었다. 그러나 62年 10月 中·印國境 紛爭과 「큐바」事變가 발생하자 그는 소련의 미온적 對美政策에 불만을 품고 中共側으로 기우려졌다. 北韓의 對소非難은 「체코슬로바키아」 共產黨 第12次大會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63年 들어서면서 對소誹謗은 더

욱 노골화 되었다. 63年10月28日字 『로동신문』社說 「社會主義陣營을 응호하자」는 平壤의 「모스크바」에 대한 「이데올로기」戰爭의 宣戰布告와 같은 것이었다. 이로써 金日成은 中共의 反소運動의 한 旗手로 되었던 것이다. 平壤과 「모스크바」와의 「이데올로기」對決은 64年6月 中共主導下에 平壤에서 개최된 「아시아 經濟會議」에서 결정에 달했고, 和解의 可能性은 소멸해버렸다. 金日成政權의 存亡을 건 對「호르시초프」鬭爭의 关键是 北韓의 將來를 規定할 극히 重要한 問題였다. 그러나 突然히 또한 不意에 소聯共産黨第1書記 「호르시초프」는 64年10月 歷史의 舞台上에 밀려났던 것이다.

「호르시초프」의 失脚에 의하여 金日成은 極히 不安했다. 政治的 모험의 위기로 부터 벗어날수 있었다. 소聯의 新指導層은 金日成에 대한 壓力이 北韓을 中共側에로 넘겨줄것을 염려하여 慎重하고 忍耐性있는 對北韓政策을 再策定한게 틀림없다. 한편 北韓도 긴급한 軍事的 經濟的 援助를 받아야할 必要性에서 소聯의 新指導層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中共과 같이 「호르시초프」 없는 「호르시초프」主義」云云의 비방을 하는 일은 일체 삼갔다. 그리하여 「모스크바」-平壤間에는 和解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65年2月11日 「코쉬긴」은 「하노이」로 부터 「모스크바」로 帰還하는 途上에 平壤을 訪問하는 金日成과 일련의 會談을 가졌다. 「호르시초프」失脚後의 그의 平壤訪問은 「스탈린」死亡後 즉, 54年5月 「호르시초프」의 「벨그라드」訪問과 政治的 意味에서는 極히 유사하다. 그후 「모스크바」-平壤間에는 政治的 解氷이 일어나 兩者

間에는 오늘까지 經濟, 軍事, 交易, 文化使節團이 빈번히 오고 가고 있다. 그리고 數多한 新協定들이 調印되고 關係惡化時期에 이행이 중단되었던 旧協定들이 되살아 났다. 물론 상호간의 誹謗도 최소한 公開的으로는 사도되지 않고있다.

推測컨대, 「모스크바」와 평양간에는 金日成이 反소가 아닌 한 「모스크바」는 北韓의 內政에 간섭하지 않으며 對北韓軍經援助를 재개한다는 일종의 默契가 成立되어 있는듯 싶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北韓이 66年3月 公的으로 「自主性」을 宣言하고 「社會主義革命」과 「社會主義建設」에서 独自の인 路線을 追求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바다. 金日成의 自主路線은 歷史的인 中·소 紛爭속에서 國際共產主義運動이 四分五裂되고 一元的이었던 「社會主義陣營」이 多元化되고 있는 추세의 產物이다. 東歐의 共產黨國家들도 이미 소聯에 종속된 단순한 衛星國家의 地位로부터 소聯을 반대하지 않는한 상당한 自治權을 가지는 小同盟國의 地位에로 向上했다. 이러한 情勢에서 北韓도 소聯과 中共의 小同盟國으로 內外問題에서 独自の인 立場과 發言權을 획득했다. 國際政治의 多極化現象이 小國들의 自主의機會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普遍的 現象이지만, 北韓은 前述한바 對中·소關係에서의 特殊한 位置를 利用하여 더욱 自主의 立場을 強化해왔다. 最少限 韓半島問題에 關해서는 美國이 大韓民國의 主張을 尊重하지 않을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中·소兩國도 北韓의 立場을 決코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現代의 狀況이다.

國際政治의 多極化現象은 世界 3大核國이 介入되어 있는 韓半島이
 도 그대로 沒影되려 하고 있다. 韓半島의 國際關係는 이미 앞에서 論及한 바
 와 같이, 韓半島・美・日本의 南韓內의 3角關係, 北韓・소聯・中共의 3角關係, 그
 리고 美國・日本・소聯・中共의 東北亞 4角關係를 基點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平和體制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美・日・소・
 中共의 4國이 東北亞全體의 前途에 대한 意志와 意見의 一致가 있
 어야하고, 다시 韓國・美國・日本의 3者 間에 韓半島에 관한 統一
 된 意思와 政策은 물론 北韓・소聯・中共의 3者 間의 統一된 意思
 와 政策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韓國・北韓・美國・소聯・中共
 日本의 6個當事者가 完全히 合意를 볼 때만 韓半島의 공고한 平和
 는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至難한 일이다. 무엇
 보다도 南・北韓 間의 政治的 軍事的 對立과 中・소의 紛爭은 6者
 의 共同合意를 거의 不可能하게 만들고 있다.

韓國과 美國과 日本은 韓半島의 分斷現狀을 우선 하나의 現狀으로
 서 당분간 그대로 認定하는 方向에서 4大國 間의 勢力均衡에 依하
 여 平和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北韓은 駐韓美軍의 撤수에
 의한 南韓의 相對的 弱화와 南北韓의 軍事的 不均衡을 造成하므로
 써, 즉 南北 間의 現狀을 打破하는 方向에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부연하면 金日成은 中・소의 2大共產國과 接境하고 있어서 불과
 數 10 分內에 소聯軍 또는 中共軍이 北韓으로 移動할 수 있다는 北
 韓의 地政學的 利點에 立脚하여 韓半島問題에 대한 <外勢>의 干

이를 강경히 반대하면서 駐韓美軍의 철수를 계속 요구해왔다.

그가 <平和>의 이름에서 <自主>의 名分에서 <統一>의 大戰에서 부단히 對南政治攻勢를 전개하고 있을때 例外없이 노린 戰略的 目標은 駐韓美軍의 철수였다. 이러한 金日成의 要求는 오랫동안 소련과 中共의 支持를 받아왔다. 美·소 冷戰時代에는 소련은 自國의 北韓駐屯軍을 48年에 먼저 北韓으로 부터 철수시킨후 美軍의 對韓철수를 요구하는 宣傳戰을 世界的으로 전개했다. 美·소 和解時代에서는 그런 要求는 弱化되고 「유엔」에 韓國問題가 上程될 때 北韓의 立場을 支援하는 연설에서 形式的으로 이것이 제기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아직 한번도 이러한 要求를 철회한 일은 없다.

가장 戰鬪的인 反美主義의 立場을 取했던 中共은 「美帝國主義 軍隊」가 自國의 門前에 주둔하고 있는데 공포를 느끼고 北韓과 마찬가지로 駐韓美軍의 철수를 강경히 主張해왔다. 그러나 中共도 71年7月 「키신저」의 劇的인 北京訪問에 의하여 美國과의 和解로 돌입하면서 그러한 主張을 弱化시켰다. 72年2月の 美·中共 上海共同聲明에서 中共은 北韓의 政策的 立場을 全폭적으로 支持했지만, 사실은 美軍의 韓半島駐屯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說이 非公式的으로 美國의 「消息通」들을 거쳐 파다하게 전파되었다.

이에 의하면 中共은 自國의 安保에 대한 위협으로써는 駐韓美軍보다는 앞으로 強化될 日本軍事力을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駐韓美軍이 철수할 경우 그 空白이 日本軍事力에 의해 메워질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未確認의 中共立場은 어느새 中共이 内心으로는 美軍의 계속적 韓半島駐屯을 願하고 있다는 這理에까지로 擴大되었다. 中共의 眞意는 누구도 파악할수 없지만 이러한 見解가 아직은 하나의 希望的 觀測에 불과하리라는 點은 여러 각도에서 立證할 수 있다.

오늘 中共에 있어서 第1級의 敵은 「美帝國主義」가 아니라 소련의 「社會帝國主義」임은 中共指導者들의 發言이나 黨文書에 明白히 表明되고 있다. 그리고 美·소의 두 強大國에 동시에 敵對 하는 罈을 犯하기 보다는 美國과 和解하는 關係를 改善하므로써 소련을 견제한다는 中共의 對外戰略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美國이 中共의 友好國이나 同盟國이 된것은 아니다. 中共의 「이데올로기」에 의하면 美國은 여전히 「帝國主義勢力」이다. 世界最強의 「帝國主義」軍隊가 自國의 門前을 占拠하고 있을 터 그 나라와의 和解가 進行되고 있다고 해서 安保上의 不安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駐韓美軍이 中·소國境의 北便에서 당장 中共을 위협하고 있는 소련軍을 견제하는 어떤 實質的인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駐韓美軍의 存在는 中共으로서의 하등의 利用價值가 없는 것이다.

駐韓美軍이 철수하여 그 役割을 日本軍事力이 떠맡는다고 假定할 때 그러한 日本의 軍事力은 中共에 대한 위협이 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中共은 오랫동안 「日本軍國主義의 收拾」을 맹렬히 공격해왔다. 그러나 國際關係의 多極化現象이 새로운 體制로 형성되어가고 美-中共의 和解가 進展되자 中共은 「日本軍國主義의 부

환」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日本의 再武裝을 前提로 日
中共不可侵條約까지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닉슨·독트린」에 따라 美軍이 東南北亞細亞로 부터 減縮해 감
으로써 장차 이 地域의 空白이 소聯勢力에 의하여 채워질 것을
憂慮하는 中共은 日本의 強化로 소聯을 견제한다는 戰略을 攄한듯
싶다. 韓半島에 관해서는 中共은 北韓의 政策을 支持하고 있지만
이것은 中共의 公的 立場인 동시에 眞意인 것으로 推斷된다. 中
共으로서의 目的의 安保를 위해서 美國도 日本도 介入되지 않은
國際的 眞空狀態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北韓은 中·소 紛糾에서 自主路線을 追求하고 있고, 소聯의 軍·經
援助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소聯과도 親近政策을 쓰고 있지만 「이
데올로기」의 的으로는 中共에 密着되어 있다. 對美和解의 促進上 中
共이 北韓처럼 강경하게 駐韓美軍의 撤수를 要求할 수는 없지만
北韓에 壓力을 加하면서까지 美軍의 南韓駐屯을 옹호하리라고는 판
단되지 않는다.

√ 美國은 4大國의 勢力均衡에 의하여 現狀維持의 方向에서 東「아
시아」의 平和體制를 構築하려는 構想을 展開해왔다. 그러기 위
해서 中共과의 積極的인 和解政策을 추진해왔고, 中共은 소聯을 견
제하기 위하여 對美解冰에로 對外政策을 振換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中共式 世界政策의 戰略的 構圖는 美國의 그것
과는 本質的으로 다르다.

도대체 中共의 國際政治理論에는 「多極化」나 「勢力均衡」이니 하

는 概念조차 存在하지 않는다. 중 國에 中共은 이른바 「中間地帶論」에 의하여 世界政治의 構造를 인식해왔지만 73年 8月의 中共 十全大會때 부터는 이것을 약간 修正한 「第3世界論」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¹²⁾ 現世界는 새개로 갈라져있는바, 美國과 소 聯으로 형성된 第1世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로 형성된 第3世界 이 두 範疇의 어느 圈에도 屬하지 않는 東 歐 西 歐 日本 등의 開發國으로 형성된 第2世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第1世界를 형성하고 있는 美國과 소 聯은 世界의 支配를 노리고 強權政治를 단행하고 있는 超大國이오, 「現代에 있어서 최대의 國際的 搾取者, 抑壓者이며, 새로운 戰爭의 策源地로 되었다」고 한다. 中共은 두 超大國의 帝國主義的 本質은 마찬가지지만 他國을 무멸하는 面에서는 소 聯이 「특히 악랄하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격의 銳鋒을 주로 소 聯에다 돌리고 있다. 美·소의 두 超大國은 서로 일시적으로 타협, 結託하고 있지만 世界制 覇의 野望때문에 그 利害는 조화될수 없으며 결국은 全國的이오 長期的이오 絶對的인 爭奪戰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두 超大國이 存在하는限, 이 世界에는 결코 平安히 있을수없고 情勢의 緩和나 恒久的 平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美-中共의 和解以後 美國의 政治家들은 世界가 平和의 力向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는 反對로 中共의 指導層이 보는 情勢는

「天下大亂」, 즉 世界는 「美帝國主義」, 「소 聯修正主義」 各國「反 動派」들로부터 國家獨立과 民族解放을 쟁취하려는 各國人民들의 革 命鬭爭에 의하여 큰 混亂에 빠지고 있으며 이러한 革命的 混亂은 「덧진」情勢에 틀림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北京의 理論家들은 現情勢를 분석하면서 「일부의 論者들은 야단스레 天下太平을 宣傳하고, 1973年을 緊張으로 緩和, 協力으로 向하는 <<轉換의 해>>라고 말하고 있었다. 허나 天下가 크게 흐터지고 있는 것은 결국 歷史의 現實임에 틀림없다」고 개관하면서 「진정한 緩和는 帝國主義, 社會帝國主義에 反對하는 鬭爭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¹³⁾고 강조한다. 中共이 「닉슨」

招請을 決定한 것은 「소修社會帝國主義를 孤立시키는 重要한 戰略的配賦」며 「美·소의 結託을 깨트리는 것은 소修의 侵略的野心에 대한 重大한 打擊이다」¹⁴⁾고 71年 7月 20日에 이미 政略的 重點을 明白히 하고 있다. 한편 中共은 소聯이 第3世界의 「同盟者」의 假面을 쓰고 있으며 「아시아」集團安保體制를 선전하면서 帝國主義的 擴張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注目할만한 것은 소聯修正主義者들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傀儡集團 「론·놀」, 朴正熙, 심지어는 蔣介石一派와까지도 氣脈을 통하고 있다.」¹⁵⁾고 비난하고 있는 점이다.

中共의 政策的立場이 이러할 때 라면 毛沢東이나 周恩來가 韓國政府의 對中共接近政策에 간단히 응할 것인가는 큰 疑問이 아닐 수 없다.

北京의 黨理論家들은 中小의 開發國들로 형성된 第3世界는 상황이 복잡하며, 그 中 일부는 아직도 第3世界에 대하여 植民主義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資本主義國家들이오,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은 東歐諸國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대개가 美·소의 어느 超大國의 支配, 위협, 謫시를 받고 있어 美國 또는 소聯에 대해

큰 不滿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中共의 理論이 東歐諸國을 第2世界에 歸屬시키고 있는 것은 소聯從屬下의 이 나라들을 소聯으로부터 분리시키자는 政略的意圖의 반영이다. 마찬가지로 西歐나 日本 등 美國의 同盟國들을 第2世界의 범주에 두고 있는 것도 西方陣營의 分裂을 그리고 구상한 戰略理論이다. 超大國의 억압하에 있는 第2世界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從屬的 地位에 동정하고 國家의 獨立과 主權의 保全을 수호할 것을 強調하면서 이 나라들을 中共에 대한 支持勢力으로 轉化코져 한다.

中共이 열렬한 政治的 一體感과 革命的 격투를 보내는 곳은 第3世界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等 아직도 開發途上國들로 구성된 광범한 第3世界는 오랫동안 植民主義, 帝國主義의 억압과 착취를 받았다는 歷史的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들은 政治的으로 獨立을 쟁취하였지만 아직은 植民主義의 殘存勢力을 일소하고 民族經濟를 發展시키며, 民族의 獨立을 수호해야 할 歷史的 任務에 直面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나라들은 가장 酷심한 抑壓을 받고 있음으로 抑壓을 반대하고 解放을 求구하고 發展을 희구하는 強한 要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現在의 狀況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들 開發途上國은 世界史의 수레바퀴의 前進를 밀고 나가는 革命的 原動力이요, 植民主義, 帝國主義 특히 超大國에 反對하는 主權 勢力」이라고 分析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이지만 韓國과 같은 美國의 同盟國을 第3世界의 一員으로 간주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中共은 反西方的 또는 反소의 第3世界의 革命性에서 世界革命의 原動力을 찾고자 하며, 「中國은

社會主義國家요, 또한 開發途上國이다. 中國은 第3世界에 屬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이 범주에 歸屬시키고 있다. 北京의 指導者들은 中共은 아직 가난하며, 超大國도 아니요, 世界制霸를 획책하지는 않는다고 表面上 겸손한 大人의 태도를 取하면서 國聯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第3世界의 開發途上國들의 共感을 획득하려는 것이 現時點에서의 그의 國際政治上的 基本戰略이다. 中共은 率直하게도 「戰後의 한 時期에 존재하고 있던 社會主義陣營은 社會帝國主義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美·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은 非同盟國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 그의 실질적 盟主가 되려고 있다.

中共의 對北關係는 「文化革命」時期 金日成이 毛澤東派에 성급히 同調하기를 주저했던 탓으로 紅衛兵들의 大字報와 出版物에 의하여 일시 공격을 받은 事例를 제외하고는 소위 「피로 맺어진 戰鬪的友誼」가 언제나 強調되어 왔다.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議, 「유엔」과 모든 政治舞臺에서 中共은 北韓의 立場을 全的으로 支援해 왔다. 金日成이 이른 바 「自主的平和統一」의 實現方案과 駐韓美軍의 撤수를 核心으로 하는 그의 平和協定提議도 北京의 한결같은 聲援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6月1日 金日成이 駐北韓「마다가스칼」新任大使에게 「朝鮮은 「마다가스칼」과 마찬가지로 第3世界에 屬해 있다」고 한 発言을 大書特書로 報道함으로써¹⁶⁾ 中共과 北韓은 同一한 陣營에 屬해 있음을 은근히 示唆하고 있다. 中共은 美國과의 和解를 촉진시켜야 할 必要에서 北韓처럼 격렬한 反美鬪爭을 전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고 對美和解政策 때문에 北韓과의 密着關係를 해이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中共이 北韓을 背信한다면 金日成이 「모스크바」 쪽으로 轉身할 可能性이 있고, 中共이 발판으로 삼으려는 第3世界의 信賴를 상실할 것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中共이 択할 수 있는 韓半島政策은 對美 和解政策을 手段으로 用고가지 않도록 北韓의 새로운 對南戰爭이나 重大한 軍事的 挑發行爲는 후원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北韓과 第3世界를 상실한 冒險을 犯하면서까지 對美和解는 追求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데올로기」的으로 또한 外交的 側面에서는 계속 北韓의 立場을 聲援하면서 소聯을 견제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關係는 改善해 나가려 할 것이다. 여기서, 때로는 美國과 때로는 北韓과 마찰이 일어날 수는 있으나 北韓을 포기하면서까지 美國政策에 全的으로 同意한다는 것은 想像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때 韓國의 對中共接近政策은 그의 가장 어려운 對外政策이 될 것이다. 앞으로 韓國政府는 對北平和攻勢의 일환으로 그리고 國際舞臺에서 平和愛好의 映像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中共에 對해 外交的 信號, 미소, 提議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中共은 언제나 北韓과 협의하고 北韓의 同意하는 條件에서만 韓國과 접촉하려 할 것이다. 韓·中共間의 關係改善은 南·北韓의 關係改善의 結果일 수는 있어도 그 原因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二. 蘇聯의 「아시아」政策과 韓半島

소련의 「아시아」政策은 그의 世界政策의 일환이며 그의 주요한 制衡은 美·소의 共存協力体制 및 對中共政策을 中心으로 形成되고 있다. 64年 10月 「호르시호프」体制을 變則적이지만 平和的으로 繼承한 新「브레즈네프」-「코시긴」政權은 舊政策의 現象適合적인 것은 계속 담합하고 있는데, 對美平和共存과 協同政策은 그의 가장 代表的인 것이다.

소련의 新政權은 對內的으로는 「호르시호프」時代에 海이해 策면 「이레울로키」에 對해 엄격한 統制政策을 강행하고 東歐諸國에 對해서도 68年 8月에 「체코슬로바키아」侵攻에서 노정된 것과 같

이 「有限主權論」에 의하여 支配體制를 強化하고 있다. 소련은

이미 自國의 勢力圈으로 化한 共産主義地域을 單호히 방위하지만

美國의 勢力圈에 對한 「이레울로키」的 또는 物理的 侵攻은 對美

協力關係의 파괴를 우려하여 시도하지 않고 있다. 世界超大國이 또

核巨國인 소련은 美國과의 軍備競争에는 막대한 精力을 기울이고

있지만 核武器에 의한 兩國의 對決을 우려하여 상대國의 勢力圈

에 干涉하는 冒險은 避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美國도 마찬가지

지이다.

美·소兩國은 各々 相手方의 既得權을 넘겨다 보지 않는다는

點에서 서로 안목의 양해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現狀維持

를 追求하고 있다. 美國은 56年 가을의 「플렌드」 및

「프랑크」侵攻에서 68年의 「체코」侵攻에서 예증된 바와 같이 東

歐에서의 소聯의 地位에 실질적으로 타격은 가한 일이 없으며 소聯도 美國의 「아시아」 同盟國들과 「라틴·아메리카」 勢力圈에 대해서는 積極的인 침투·介入政策은 삼가고 있다. 이러한 兩國의 既得權是認, 現狀維持政策은 南北韓의 경우에 드 대체로 그대로 適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肥大한 既成勢力으로 성장한 소聯의 外交는 既得權을 수호하는에 注力하고 있으며 따라서 「平和와 安全保障」에 중점을 두고 있다. 美國으로부터의 安全保障을 위해 소聯의 指導權은 核武器와 「미사일」 開發에서 美國을 따라잡으려고 國民生活를 희생시켜 왔으며 最近 數年동안에는, 海軍을 強化하여 소聯의 함대가 地中海와 印度洋을 넘나들게 되었다. 한편 「나토」와 對峙하고 있는 東歐諸國內의 自國軍隊의 주둔을 유지하고 中·소國境紛爭의 惡化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核武器뿐만 아니라 在來式武器도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소聯의 軍備增強은 계속 上昇되어왔다. 그리고 소聯은 美國 및 中共과 第3世界에서 勢力競爭을 벌일 수 밖에 없는 政治的 要請 때문에 이 地域에 對한 軍·經援助를 제공해왔다. 第3世界, 특히 東南「아시아」, 中東一帶는 面積, 人口, 資源面에서 놀랄만한 潛在力을 가진 곳이고 따라서 世界歷史의 將來에 막대한 影響을 미칠 것임으로 아직 世界 어느 強大國과도 同盟을 맺지 않은 이 地域에서 同盟者 내지는 同調者를 획득하기 위한 競爭을 美·소·中共間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호르시호브」는 「유럽」에 있어서는 現狀固定기 方向으로 美國과의 和解를 촉구해 나가면서도 東南亞(「버마」, 「인도네시아」等)

印度亞大陸, 아랍圈,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積極的 進出을 시도해 왔다. 그는 이 地域의 非同盟國家의 指導者들을 「反動」으로 敵視하는 대신 그들이 反西歐的이라는 點에서 「進步的 民族「브르조아지」」로 규정하고 그들의 路線을 「民族民主主義」라고 높이 評價해 왔다. 이 指導者들의 거의 全部는 非共産主義者요, 國內的으로는 共産黨을 탄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르시초브」는 이들에게 軍事·經濟援助를 提供했다. 그는 이 地域을 支援함으로써 그곳 人民들 사이에 다 親소의 心情과 분위기를 퍼뜨리고, 그 나라들이 自己式으로 社會主義으로 成長해 갈 것을 기대해 왔던 것이다. 「호르시초브」의 後繼者들은 前任者의 政策을 답습하고 있지만 보다 더 現實的으로 行動하고 있다. 즉, 「브레즈네브」- 「코시킨」政權은 社會主義를 志向하지 않는 保守政權이라도 소聯에 對해 友好的인 外交政策을 取하기만 하면 援助를 提供하고 이것과 소聯과의 關係를 긴밀화 하는 方策을 採하고 있다. 말하자면 소聯은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觀點에서가 아니라 自國의 安全保障의 觀點에서 對第3世界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聯은 軍事·政治的 準同盟國을 획득하여 自國周邊에 安全地帶을 구축하는 戰略을 추진해 왔다. 71年 8月에 체결된 소·印平和·友好條約은 美-中共의 後援을 받는 「파키스탄」에 對해 印度의 地位를 軍事的, 政治的으로 強化하는 동시에 中共을 그 西部에서 견제함으로써 東쪽 中·소國境紛爭에서의 中共의 軍事的 立場을 弱화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소聯은 72年에는 「이란」과 國境紛爭의 問題를 안고 있는 「이라크」와 友好·協力條約을 맺음으로써 美國과 軍事的으로 제휴하여 소聯에 對한 위협을 造成하고 있는 「이란」을 억제하는 方策을 실시하고 있다. 소聯은 이와같이 美國 및 中共과는 世界的 競爭을 벌이지만 동시에 國際的 平

和体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美國과의 平和共存·協力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中心問題로 제기되는 核政策에 關해서는 美蘇과 조심스러운 協商을 추진하여 68年 7月에는 核擴散禁止條約을 調印하고 다시 72年 6月에는 「닉슨」 - 「브레즈네프」會談을 통하여 美·소核戰爭防止協定에 加入했으며 戰略核武器制限交渉 (SALT)의 第1段階를 마무리지었다. 그리고 尙後3年동안에 20 ~ 30億弗에 이르는 對美通商關係의 擴大에도 合意했던 것이다.

소聯의 「아시아」政策이 美·蘇協力體制안에서 어떻게 具象되고 있는지를 특히 韓半島에 대한 政策이 具體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明白한 意思가 없어 알 수가 없다. 「브레즈네프」는 69年 6月 世界共產黨會議席上에서 「아시아集團安全保障」의 構想을 發表한 바 있다. 이것은 「닉슨 독트린」보다 時期的으로는 한달을 앞서 나온 것이다. 그 취지는 小聯은 「아시아」諸國과 善隣的인 協力關係를 맺고 이 國들을 他國의 內政干涉, 武力侵略으로부터 守護하는 體制를 수립한다는 것이지만 그 內容은 명확치 않다. 이 安全體制가 平和的·性格을 가지는 것이므로, 따라서 軍事同盟體制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中共은 이러한 小聯의 構想이 美·소共存을 토대로 小聯이 北方으로부터 中共을 봉쇄하려는 戰線이라고 하여 反撥하고 나섰다. 小聯이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내세우는 근거로는 小聯도 「아시아」의 한 國이라는 點을 들고 있으며 中共도 이 體制에 3함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小聯의 構想의 本質에는 「아시아」로부터의 美國勢力의 후퇴를 豫見하고 그 때의 힘의 空白地帶을 中共勢力이 메울 것을 우려하는 對應策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하다.

韓半島에 관해서 소聯은 外交的 言辭로는 北韓을 옹호하고 國聯에서도 行動으로써 北韓의 立場을 支援해 주고 있지만 駐韓美軍의 指導를 中共처럼 強烈하게 要求하지는 않는다. 「크레물린」의 指導者들은 北韓의 強경한 反美政策을 對美協力を 기코로한 소聯의 世界政策을 깨트릴 정도로 強하게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聯의 방대한 對外政策 全般에서 볼 때 核時代에 있어서의 韓半島問題는 그러 重大한 것이 아니며 이것 때문에 美國과의 關係를 惡化시키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核戰略과 現狀維持의 観点에서 世界政治를 보는 소聯으로서는 韓半島의 既定事實을 그대로 시인하는 前提에서 對美協力を 계속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도 主觀的으로는 南北間의 軍事的 均衡을 유지하는 次元에서 제공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聯은 北韓의 軍事同盟國이오 北韓에다 실질적으로 軍事的-經濟的 援助를 제공하고 있는 世界の 거의 유일한 나라다.

北韓이 「이데오로기」의으로 中共에 밀착되어 있고, 中, 소紛爭에서는 親中共의 中立路線을 견고하고있는 現實이 소聯共產黨内の 一部勢力에는 심히 不快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聯으로서는 韓國의 平和政策에 公명하는 나머지 北韓을 輕視할 수 없으며 南韓을 北韓의 後位에다 둘수도 없다. 여기에 韓國의 對소 接近政策에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소聯은 美國과 協調할 必要때문에 北韓의 反美政策과 對南挑發政策에의 同調를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北韓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한도에서 韓國의 平和信號에 조심스레 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韓國과의 접촉을 위하여

北韓에다 政治的 壓力을 加하지는 않을 것이다. 韓國의 記者와 實業家들과 「유니버시아드」選手들이 소聯領土內에 入國할수 있었다는 것은 情勢의 重要한 變化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韓·소交流의 信號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소聯이 北韓의 抗議를 무시하고 韓國의 對소 接近企圖에 호응한다면 그것은 同盟國에 대한 背信으로 非難을 받고 北韓을 中共편으로 넘기게 될것이다.

強大國 소聯으로 볼 때 弱小國 韓國은 政治, 經濟, 軍事, 文化的으로 크게 注目의 對象이 될만한 나라가 아니다. 이 點에 있어서 韓國의 國際的 地位는 西獨의 그것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北韓에 對한 同盟關係와 여타의 源初的인 모든 關係에 逆行하면서 까지 소聯이 韓國과 善隣友好關係를 맺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韓半島의 平和가 소聯의 對美協力에 不可欠하다고 인식할 때는 美國과 직접 교섭할 것이오 北韓에 대해서는 스스로 說得工作에 나설 것이다. 실사 소聯이 韓國에 接近하고 싶은 意圖가 있다고 假定해도 中共의 宣傳攻勢를 염려하여 주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모스크바」와 北京 어느편으로든 轉向할 위치에 있는 北韓의 反應을 예민하게 考慮하지 않을수 없다. 소聯은 北韓의 「革命的」對南政策과 對美攻擊에 內心으로는 共鳴하지 않는 경우라도 國際的으로는 北韓을 支持하는 競爭을 中共과 벌이지 않을 수 있는 운명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광범한 第3世界에서의 中共의 對소 「이데올로기」攻擊을 저지하기가 어려운것은 明白하다.

그렇다고 韓國의 對소接近(對中共 接近도 마찬가지지만)이 절대로 불가하다는 結論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소聯의 對北韓關係

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北韓을 자극하지 않고 소聯의 입장을 難勉하게 만들지 않도록 宣傳的 분위기가 아니라 조용한 幕後交涉을 통하여 한걸음 한걸음 接近할수는 있을것이다. 지난 7月末頃 韓國貿易協會 朴會長이 말한 對소直接貿易의 可能性이 報道되자 8月1日 소聯의 「타스」通信이 이것을 황급히 否認하는 論評을 발표한 것¹⁷⁾은 무엇보다도 北韓과 中共側의 반발을 염려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오늘의 소聯指導層은 現實主義者요 實利追求的이요, 現狀維持에 관심을 가지는 權力政治家이기 때문에 韓國의 對소接近은 試圖해볼만한 일이지만 또한 그들은 바로 그러한 政治家들이기 때문에 中共의 맹렬한 「이데올로기」攻勢를 避하기 위하여 더욱 革命的言辭를 弄하고 있다. 이것은 北韓에는 有利하고 韓國에는 不利한 狀況이다. 때는 脫「이데올로기」時代요, 소聯은 現實적으로 國家利益을 追求하는 나라기 때문에 韓國의 對소接近은 용이할것이라고하는 判斷은 中대한 錯覺이 아닐수 없다. 對소接近은 對中共 다음으로 어려운 韓國外交의 課題이다.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는 가장 조심성있고 持久力을 가진 長期的 外交戰略이 요청되는 것이다.

註

- 註 1) George M. McCune, Korea Today, 1950, P.280.
- 註 2) 日本國際問題研究所, 中國部會編 「新中國資料集成」, 第3卷
1969年, P.184
- 註 3) Chang-sik Lee and Ki-wan Oh, "The Russian Faction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III, No. 4, P. 271
- 註 4) Ibid
- 註 5) 朝鮮軍參謀本部發行「高麗共產黨及北朝鮮共產黨ニ関スル調査
書」, U.S. Congress Library Microfilm, Reel 128,
F44221, 44226.
- 註 6) Chong-sik Lee and Ki-wan Oh, op. cit. p.273.
- 註 7) Ibid., p.270.
- 註 8) 이에 關해서는 朝鮮歷史編纂委員會編「朝鮮民族解放鬪爭史」
日訳版, 1952年, pp. 326 ~ 327. Chong-sik Lee,
"Korean Communism and Yenan", The China Quarterly,
No. 9 및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
ment, 1918-1948, pp.220 ~ 230 参照
- 註 9) 李繼英著 「朝鮮民族解放鬪爭史」, 日訳, 1960年, pp.391~394
- 註 10) 金俊燁・金昌順著 「韓國共產主義 運動史」 第3卷,
1973年, p.372 및 p.334
- 註 11) Dae. Sook Suh, op. cit., pp.289 ~ 293 및 p.317
参照

註 12) 中共의 「第 3 世界論」은 74 年 4 月에 열린 第 6 回國聯特別總會에서 한 中共代表團團長 鄧小平의 演說에서 가장 명석하게 제시되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北京周報』 1974 年 第 5 號에 실린 그의 演說全文에 依拠하여 說明한다.

註 13) 『北京周報』 1974 年 第 3 號 . PP 10 ~ 14.

註 14) 「닉슨의 北京訪問에 관한 中共中央의 通知」, 1971 年 7 月 20 日, 『星島日報』 1972 年 2 月 18 日.

註 15) 『北京周報』, 1974 年 第 12 號, p. 10

註 16) 『北京周報』, 1974 年 第 24 號, p. 28.

註 17) 『朝鮮日報』, 1974 年 8 月 3 日.

第 二 部

1. 中·蘇兩國의 「이데올로기」와 國家利益
2. 對中共 交戰狀態의 終息
3. 하나의 試案 - 白翎島 등 西海 5 個島嶼의 平和利用 方案

한국이 中共 또는 蘇聯의 접근함의 있어 제1차적으로 專屬를 요하는 것은 安探문제이다. 즉 容觀的으로는 韓半島 전체의 安全保 障문제, 主觀的인 의미에서는 大韓民國의 生存權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들의 접근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韓國은 역사적, 현실적으로 中·蘇양국의 敵性國 관계에 있으며 우선 이 관계를 扞抗, 正산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상대로 한 和解, 접근의 길은 막연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역지사 제기의 는 문제는 韓國에 대한 中·蘇양국의 역사적인 관계와 그들의 현실적인 政策의 입장의 차이이다.

먼저 韓國의 對蘇관계와 蘇聯의 對韓정책을 살펴보자. 美蘇河區의 冷戰體制에서 政治的으로 한국을 인정하지 않아온 蘇聯은 결 구 北緯에게 韓國을 侵攻할 수 있는 軍·經援助를 제공했고 그 결과 韓國전쟁을 '유발시켰지만 「스탈린」死後 50年代末~60年代 초부터 매우한 改善(「케네디」와 「흐루시초프」시대 즉 美蘇平和 共存시대의 후 中共과는 달리 韓半島에서 최소한 敵對행위의 再發 (Recurrence of hostility) 안은 막는에 공정한 美蘇協助體制 를 건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의 이같은 外交路線은 결국 中共으로 하여금 「美蘇兩大國에 의한 世界支配圖策」이라는 비판을 받게 했지만 69년 6월 「모스크바」世界共產黨大會에서 「브레즈네 프」蘇聯共產黨書記長의 공표한 「아시아集團安探」구상으로 더욱 큰

一. 中蘇兩國의 이해충돌기와 國家利益

어졌다. 이 「아시아」安保구상은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72년 3월 21일 공포된 바에 따르면
① 國家간의 武力행사의 거부 ② 主權의 존중과 國境의 不可侵
③ 內政不干渉과 완전한 互惠平等에 입각한 經濟協力등으로 되어 있다. 1)

이와 거의 때를 같이 한 69년 6월 29일 「팜」島에서 발표된 미국의 「닉슨 독트린」 宣言은 소련의 「아시아」安保구상과 상호補完하는 측면조차 보여 주목을 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소련의 「아시아」集團安保구상은 「닉슨 독트린」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 (Withdrawal from Asia)」정책을 豫見한것 같기도 하다.

그러한 假定이 만약 허용된다면 이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蘇平和共存을 위한 양대국 사이의 어떤 默契 또는 某種의 양해 ~ 「태프트」=蘇默契같은~가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미국의 「아시아철수」를 간파한 소련이 「아시아」의 힘의 空白를 메우기 위한 「이니시에티브」를 재빨리 포착했다고도 볼 수 있을것 같다.

결국 소련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美蘇양국의 冷戰體制로 빚어진 敵性관계였다. 따라서 對蘇관계개선은 어떠한 형식상의 개편을 요하지 않는다. 美蘇냉전체제가 共存체제로 移行된 것처럼 상호 功利主義的인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도모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소련外交의 「이데올로기」的屬性을 한국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기

술적인 문제만이 남을 것이다.

『資本主義는 封建主義나 마찬가지로 早晚間 몰락할 것이며 社會主義국가들은 共產主義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

이것은 1957년 「호루시초프」蘇聯首相이 西方記者에게 한 말이다. 이것은 또한 「마르크스」-「엥겔스」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社會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서 제시한 辨証法的역사전개의 定式이기도 하다. 이 定式은 그후 「레닌」~「스탈린」~「호루시초프」를 거쳐 현재의 蘇聯지도층에 이르기까지 固守돼온 共產主義者들의 확립된 長期的목표이다. 이 長期的목표를 위한 실천과정에서는 독특한 世界觀의 定立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認識體系 (A System of Knowledge) 가 先行되고 있다.

蘇聯지도층이 信奉하는 認識體系는 「量的인 蓄積은 質的인 變화를 결과한다」는 변증법적 논리로 집약된다. 즉 세계각국이나 국제사회는 끊임없는 충돌로 점차 변질될 것이라는 신념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者들의 표현으로는 『상호 모순되는 상대끼리의 끊임없는 충돌 그자체가 質的인 變질을 결과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敵對階級이나 「부르조아」指向的인 개인 또는 국가·사회간에 일어나는 현상일뿐이지 共產主義를 지향하는 社會主義국가간에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그러나 똑같이 共產主義를 지향하는 社會主義국가를 자처하고 있는 中共과 蘇聯은 이미 「變質」을 결과할지도 모를 「끊임없는 충돌」로 「상호 矛盾되는 상대」가 된지 오래이다. 이 상호모순되

는 상대가 한국을 상대로 상호 모순되지 않게 공존할 길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를 환영할지 모른다.

중요한 것은 國際政治에서 작용하는 蘇聯外交의 「이데올로기」의 속성이 때로는 현실에 적응, 수정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마르크스·레닌」主義的 「이데올로기」는 세계혁명을 위한 共產主義쟁창이며 때때로 현실에 적응, 수정되는 蘇聯外交의 樣態는 「레닌」의 이른바 「장차 있을 모든 세계혁명의 基地」로서의 蘇聯의 安保를 국가이익을 보충하자는데 있다. 즉 蘇聯外交의 기본노선은 ① 共產主義쟁창원칙과 ② 國家이익 優先원칙으로 大別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쟁창원칙이 蘇聯外交의 長期목표이며 大戰略이라고 한다면 蘇聯邦의 국가이익우선원칙은 그것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短期的 戰術이라고 보아야 할것것이다.

이것은 中共의 입장에서 볼때 「超強大國主義」의 顯現이며 그러한 中共의 견해는 소련의 눈으로 볼때 「偏狹한 民族主義」로 비치는 것이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세계공산주의와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옹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소련은 「국가이익우선주의」에 따라 資本主義체제하의 印度에 經濟援助를 제공하는 대신 共產中國체제는 그것을 中斷하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印度는 美國의 靚조를 단념해야 했고 반대로 소련은 中共을 미국과 접근시키지 않을 수 없는 代價를 치루어야 했다. 따라서 韓國이 만약 소련에게 접근해야 한다면 그동안 견지되어온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다소라도 훼손시키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직면하게 될런지도 모른다.

또한가지 고려사항으로 對蘇접근이 빛을 中共과의 마찰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러잖아도 中共이 소련의 「아시아」集團安堵구상을 가리켜 「美蘇提携에 의한 世界分割支配구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만약 그것을 수락하거나 수락할것 같은 「제스처」를 보인다면 中共과의 관계는 아마도 현재이상으로 악화될 것이며 자칫하면 中共이 北韓을 움직여 韓半島에 새로운 긴장을 유발케 할 우려마저도 없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蘇聯과의 접근은 非政治的, 非構造的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蘇聯의 對韓정책으로써 두드러지게 表面化된것은 없다.

그러나 최근 蘇聯당국이 「사할린」同胞귀환문제를 놓고 日本政府 또는 國際赤十字社등 第三의 媒介를 통해 보여온 일련의 外交的 「오버추어」(Overture)는 일단 好意的인 것이라고 할만 하다. 특히 지난 73년이래 蘇聯당국이 보여준 일련의 門戶개방정책은 앞으로의 對蘇접근에 밝은 전망을 엿보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演出家 柳德馨씨의 「모스크바」訪問에 이어 「유니버시아드」選手團, 經濟人·記者등의 비공식入國허공, 그리고 그후 몇몇 일간지 기자들이 蘇聯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는 東歐圈을 방문할 수 있었던 事例등은 확실히 北魏와의 軍事的對峙라는 현실속에서도 平和共存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증명한 것이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類의 門戶개방은 아직 硬法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일뿐더러 例外없이 一方通行的인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상호 관계의 好

轉은 상대적인 것이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서두는것 만으로도 기대할수는 없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68년 10월경 台灣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蘇聯의 인물 빅터 루이 (Victor Louis) 記者를 은밀히 초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 있다. 「루이」는 西歐세계와 東南亞 反共國家 들을 수시로 왕래하는 諜報기자이다. 그는 비록 공식적으로 蘇聯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政策수립에 참여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고 있지 않으나 往往 그의 行脚이 탐색적인 임무를 띠운 것이 리라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정부의 관리가 그를 공식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의 「取材활동」의 무대가 되고 있는 西歐각국 또는 東南亞일대의 각국首都에는 外信記者「클럽」같은 단체들이 있으며 韓國의 각종 「매스 미디어」를 대표하는 기자들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와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얻을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무대에서 서로 적절한 기간을 통해 상호 탐색한 결과 韓國기자가 개인자격 또는 민간기관인 所屬社의 이름으로 그를 초청한다면 「루이」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거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非共産세계 각국을 巡訪하고 있는 「루이스」記者의 「탐색임무」는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구상」의 목표 (Target) 가 되고 있는 台灣, 「크메르」, 越南, 「말레이저아」, 「싱가포르」등 「아시아」反共國家群의 對諜접근을 위한 原動力 (Prine mover) 的 역할을 해왔다.

특히 中·蘇양국은 이지역 (東南亞) 에서의 세력확장을 위해 서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상호 교류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右이다. 그 초석을 다지는 단계에서 한국은 이익상 더 獎勵的인
일련의 好意的인 「시그널」은 經濟的, 政治的 관계개선을 위한 擬
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擬婚이 보여준 非政治的 측면에서의
은 것이다. 政治的인 입장에서 아직 韓·日간의 敵性關係가 완전
한국은 擬婚당국의 好意的인 「시그널」을 받아들일때가

韓國의 入國이 허용되었다. 2)

마」에서 열렸던 제 5회 「차이코프스키」音樂祭에는 鄭男探의 明
거절된바 있다. 그러나 금년 6월 11일부터 7월 4일까지 「모스크
茲, 金茲璣의 동도 「파리」까지 가서 「비자」신청을 했으나 역시
인 京滬양도 같은 사정으로 擬婚入國을 하지 못했으며 그후 曹祥
가를 포기해야 했었다. 그후 70년 제 4회대회에는 明和양의 등생
「젤리스트」 鄭明和는 擬婚당국이 入國證을 발급치 않아 大담참
樂祭가 열렸을때만 해도 「피아티프스키」의 추천을 받은 한국의
있다. 즉 지난 66년 「모스크바」에서 제 3회 「차이코프스키」플
역리차에 보낸 셈이다. 그 한 예로 鄭明和男探의 경우를 들 수
擬婚당국은 이미 한국의 對해적도 關係개선을 위한 「시그널」을
共産黨國과 擬婚된 反共국가들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본다.

비해 소련의 「어프로치」는 주로 中共의 강력한 영향하에 있는
것. 「싱가포르」 등파도 멀리않아 國交수립을 할것으로 보인다. 이에
「말레이시아」 등파 國交정상화를 성취한 것을 비롯하여 泰國, 菲律
격렬한 물다리기와 같은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결과 中共은 蒙洲

「루이」記者의 초청은 그러한 시도에 앞서는 하나의 탐색을 위하여 크게 공헌할 것이 틀림없다. 그와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演明會 어린이 合唱團 또는 「리틀·애인절스」 藝術團 등을 보낼 수 있으며 蘇聯은 그 答禮형식으로 그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볼쇼이」 「발레」團을 서울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非政治的, 非構造的 측면의, 접근도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蘇聯을 상대로 하는 「채널」이 없는 이상 第三國의 도움을 얻어야 할 것이다. 사실 僑胞歸還 문제를 놓고 日本政府의 外交 「채널」을 빌리는 것은 하나의 좋은 例일 수가 있다.

또한 한국과 友好的이면서 對蘇 접근에 이용할 만한 그밖의 第三國 으로서는 西獨, 「스칸디나비아」各國 또는 「캐나다」, 英國 등의 「채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二. 對中共 交戰狀態의 總說

다음으로 中共과의 關係 및 關係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中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歷來과는 달리 交戰상대 (Belligerent) 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것은 1949년 北京에 中共政權이 수립됨으로써 발생한 敵性國 (Hostile Country) 關係 내지는 假想敵 (Potential Enemy) 關係를 거쳐 1950年 10月 中共이 韓國戰에 介入함으로써 交戰상대로 進進 (Escalate) 했으며 이러한 關係는 언제라도 다시 「敵對행위의 再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그러나 中共의 韓國戰介入으로 韓國과 함께 그들의 交戰상대가 되었던 미국은 전투행위中斷 (Cease-fire) 을 위한 協定の 締結 當事者로서 서로 事實상의 승인된 국가로서 復交一步前의 상태로 까지 進進되었다. 따라서 北韓과 더불어 미국을 상대로 交戰~停戰의 단계를 거친 中共이 미국과 事實상의 國交를 수립한 것은 그 자체가 交戰상태를 서로 청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는 것은 北韓과 美國, 한국과 中共의 關係이다. 北韓은 이미 미국을 상대로 既存 停戰協定을 폐기하자는 前提아래 平和協定の 체결을 제외한 바 있다.

北韓은 실제로 그들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交戰상대자」 미국과 함께 停戰協定이라는 國際慣例上 有効한 文書에 조인한

先例를 최대 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하나의 역사적인 過失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과실」이라고 함은 53년 7월 停戰協定 초인당시 한국정부가 北韓傀儡政權을 인정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協定 그 자체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서명에 관여치 않고 이를 다만 「방해하지 않는다」는 韓美간의 양해만으로 그쳤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그후 어쩔수 없이 停戰協定の 諸般구절을 충실히 遵守, 이행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당시 「北進統一」이라는 近視眼的 固定觀念에서 脫皮하지 못했었기때문에 생긴 「과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不變하는 사실로 굳어질수만은 없는 것이다. 그 固定觀念을 정세의 변동과 함께 前進的인 자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中共을 상대로 한 「交戰상태의 종결」을 꾀해야 할것이다. 對蘇접근보다 더욱 어려운 障礙는 바로 이점에 있는 것이다.

韓國과 中共은 물론 서로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가를 승인하는 政治的행위는 승인하는 국가가 승인받을 국가와 政治的 또는 그밖의 관계를 맺고저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때 韓國과 中共은 서로 각기 다른 개념상의 瑕疵를 문제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 되는 것이다.

北傀가 形式論理上 停戰協定調印당사자의 一方으로서 他一方인 미국에게 平和協定の 체결을 제외한 것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만약 그러한 가정하에 北傀의 제외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 韓國도 中共을 상대로 「交戰상태의 종결」을 선언하거나
아니면 「不可侵協定」과 같은 형식의 제의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韓國과 中共, 그리고 美國과 北韓이 서로 互惠原則
(Principle of Reciprocity)에 입각하여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이 아직도 美國을 「侵略者」로 규정하고
있으며 中共은 「유엔」決議에 의하여 韓國에 대한 侵略者로 기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어느 一方만이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南北韓의 관계는 아직도 힘의 均衡에 의존한 상태로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잠정적인 평화는 더욱
공고한 것으로 前進시키기 위해서는 美·中共이 참여하는 또다른
형태의 現狀固着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韓國이 만약 中共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 크고 불필요한 힘의 蓄積만을 요하는 韓國停戰協定에의 참
여를 포기하고 대신 韓國과 雙務的인 또는 南北韓과 美-中共
이 함께 참여하는 不可侵協定을 위한 兩者 혹은 4者協商을 제
기하면 어떨까?

현행 停戰協定은 57년 제75차軍停姿本會談에서 상호 武器投入禁
止를 규정한 13 d項의 폐기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死文化되었으
며 이 상태로는 北韓을 제외한 3당事者가 원치않는 전쟁의 재발
을 예방할 安全觀的기능을 계속 발휘할지 의문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실제로 交戰상대가 아니었던 蘇聯과는 달리 中
共에게는 우선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交戰상태의 너울을 벗어나

하는 것이다. 그 너을이란 中共이 참여하고 있는 停戰協定이며 中共이 同協定에 의한 Obligation 에서 벗어나도록 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이 韓國의 對中共접근의 捷徑이 될 것이다.

中共에게 韓國停戰協定으로부터의 Obligation 을 벗기게 하려면 그에 代置할 새로운 法的규약에 관해 토의할 協商「테이블」에 中共을 유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中共의 당면한 外交의 기본목표는 台灣 문제의 해결이다. 72년 2월의 美中共공통성명에서도 이 문제만은 未解決의 章으로 남기었다. 즉 北京당국은 「台灣解放」이 실현될때까지, 換言하면 台灣에 대한 완전한 統制가 실현될만큼 세계의 정세가 交駁하지 않는 한 國際外交戰略上의 모든 문제는 일단 보류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中華民國과의 政治的, 經濟的유대를 中共접근과 兩立시킬 수 없었던 일본은 51년이후 政·經分離원칙을 부르짖는 가운데 對中共復交를 위한 접근을 한동안 망서렸던 것이다.

하지만 中共도 어쩔수 없이 國際外交戰略에 伸縮性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들의 기본외교전략의 변경이기도 하다. 中共의 기본외교전략은 이른바 「第三世界論」에 바탕한 것이다. 中間地帶論이라고도 불리는 이 제3세계論은 세계를 社會主義진영과 民族主義진영 그리고 帝國主義진영으로 갈라놓는 것이었다.

따라서 中共의 外交전략도 對象진영에 따라 다른 것이었다. 즉 社會主義진영 상호간에는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정책을 根幹

으로 삼고 民族主義진영에 대해서는 「협조와 提揚을 추구」하는 한편 帝國主義진영에게는 「強打를 가하고 分畀를 조작」하는 정책으로 임해온 것이다. 3)

이같은 제 3 세계의 분류는 旧中間地帶와 新中間地帶論으로 나뉘어진다. 50년대 후반까지 지속했던 旧中間地帶論은 中歐 東歐諸國등을 社會主義진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西歐 「캐나다」·大洋洲등을 中間지대로 하는 민족주의진영, 그리고 미국을 帝國主義로 분류한 것이었다. 이것은 60년대 초 中系 이념분쟁의 激化와 함께 新中間지대로론으로 변경되었다. 즉 소련을 제외한 中共, 東歐등의 社會主義진영과 美系등 「超強大國」을 대결하는 위치에 놓고 그 중간에 「아시아」, 「아프리카」 및 西歐국가들을 끼워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中共副首相 鄧小平은 「유엔」資源特種연설을 통하여 이른바 「新第三世界論」을 제기했다.

新제 3 세계論은 超強大國인 美系양국을 제 1 세계로 밀어놓고 中共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와 기타 모든 開發途上國을 제 3 세계에 위치하는 한편 西歐諸國과 日本등 中間先進國群을 제 2 세계로 定立시킨 것이다. 鄧小平은 「유엔」特種연설에서 「比較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社會主義진영은 社會帝國主義의 실현으로 이미 존재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4)

新제 3 세계論에 의하면 제 1 세계는 세계制覇를 노리고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발전도상국을 그 支配下에 두려고 하며 그들보다 힘이 없는 先進國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 2 세계에 속하는 일부 先進國들은 아직도 제 3 세계에 植民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超大國에의 隸屬化와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독립과 主權의 保全을 지키고자 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 3 세계는 政治的독립은 쟁취했으면서도 의연 식민세력을 일소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독립을 지키려는 역사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鄧小平에 의하면 이제 3 세계야말로 『世界史의 車輪의 전진을 추진할 革命的 原動力이며 식민주의, 帝國主義, 특히 超強大國에 반대하는 주축』이라고 한다.

이것은 물론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입각한 세계혁명의 방법의 변경이지 「이데올로기」的 변화는 아니다. 그것은 다만 蘇聯의 경우나 마찬가지로 공산주의팽창원칙에 입각한 國家利益優先主義일 뿐이다. 어쨌든 中共은 소련에 대한 戰略的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국가이익追求를 위해 이른바 제 3 세계圈을 상당히 광대한 범위로 확장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일단 台灣을 제외한 모든 지역국가들과 접촉할 용의가 있음을 示唆한 것인지도 모른다.

韓國도 그 접촉대상인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端的인 예로 지난 73년 5월 中共을 방문했던 「캐나다」의 「도널드 S. 맥도날드」 鉉工業資源相에게 周恩來中共수상이 밝힌 내용을 들 수 있다.

周恩來는 「맥도날드」資源相에게 「캐나다」가 「덴마크」를 상대

로 하여 「그린랜드」近海의 大陸棚 分界線 설정과정에서 얻은 경험등을 물은다음 『中共은 黃海와 東支那海의 大陸棚 海床문제를 놓고 日本과 南·北韓을 상대로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물론 台灣에 관해서만은 『中國의 일부』이기 때문에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5)

韓國에 대한 일종의 外交的 「오버추어」로 보이는 周恩來의 이 같은 발언은 아직까지 中共당국이 보인 아마도 唯一한 外交的 「제스처」의 한 예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이로 미루어 美國과 일본 또는 그밖의 여러 非共產圈각국수뇌들과의 접촉을 통해 中共이 韓國을 상대로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형태의 접촉이나 협상의 意思를 示唆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아 무방할것 같다. 한국정부도 물론 黃海 및 東支那海 大陸棚문제에 관한한 中共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서 留意해야 될 점은 敵性國. 그것도 中共처럼 한때 交戰상대였던 對象國을 상대로 새로운 관계수립을 모색할때 그 방법은 지극히 은밀하고 非公開的인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雙方이 만족할만한 어떤 妥結을 볼때까지 換言하면 접촉이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때 서로가 國際的인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美國과 中共은 72년 2월 「닉슨」대통령의 北京방문이 실현될 때까지 55년이래 「바르샤바」에서 무려 1백 50여회에 걸친 접촉을 非公開裡에 가졌고 「키신저」의 極秘外交등의 뒷받침을 필요로 했다. 한국도 앞으로의 對中共접촉에 있어 문제와 分野에 따른 적절한 「채널」의 선택으로부터 접촉방법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二. 백령도등 西海5 도서 平和利用方案

이상에서 우리는 中·蘇양국의 韓國에 대한 과거의 관계와 현재의 政策上の 差異點과 함께 이들을 감안한 우리의 접근방법등을 제시해 보았다. 또한 兩大共產国外交의 根幹은 「마르크스·레닌」主義的 「이데올로기」上的 同質性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제각기 安保上の 考慮와 國家利益 優先主義原則의 外交戰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따라서 韓國이 對中·蘇 접근은 우선 「이데올로기」와 體制를 초월하여 상호의 국가적 이익이 合致되는 方向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中·蘇양국간의 심각한 理念 분쟁과 國境충돌등 相衡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타고 넘어야 하는 점이다.

韓國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국간의 理念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韓國은 그들사이에서 엄격히 政治的中立을 견지하면서 그들의 實利의 共通分母를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蘇聯의 「아시아」集團安保구상에서 제시된 武力不使用~主權 존중 ~內政不干涉등의 基本원칙이나 54년이래 中共이 主唱해 온 ① 領土主權의 존중 ② 不可侵 ③ 不干涉 ④ 互惠平等 ⑤ 平和共存등 平和5原則은 그 意圖와 목적에 있어서는 서로 相衡되면서도 내세운 名分과 함께 하나의 適用원칙으로서 共通的인 측면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그 두가지 원칙들은 韓半島에 관한한

모두가 現狀固着指向的인 것이다.

政治的, 軍事的으로 " Buffer zone" 으로서의 韓半島의 " Status quo"를 固着시키자는 前提가 「아시아」集團安保守상이나 平和5原則에는 含有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武力에 의한 現狀打破』를 열망하는 北韓의 暴力 革命기도를 견제하는 安全관할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對中·蘇 外交戰略의 전개는 바로 이 『現狀固着化』를 구체적으로 뒷받침 하는 방안을 수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 現狀固着化는 물론 中共이나 蘇聯의 경우가 그렇듯이 韓國으로서도 어디까지나 하나의 短期的인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理念과 體制를 초월한다지만 長期的인 목표로서는 中·蘇·北韓이 함께 世界革命實現을 위한 同質的인 「이데올로기」를 信託하고 있는 이상 韓國~日本~美國의 自由民主的 體制와 理念上의 同質性 나아가서는 同盟관계를 長期的인 목표로 유지하면서 現狀固着 즉 平和共存이라는 短期的목표를 위한 外交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상에서 考察한 中·蘇양국의 韓國에 대한 이해관계 및 立場의 차이와 「이데올로기」의 측면을 고려에 넣고 두가지 접근 방안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이것은 中共의 경우에 국한된 것이다. 大陸棚문제에 관한 협상의 가능성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中共당국은 간접적으로나마 韓國을 상대로 한 大陸棚 문제協商의 용의가 있는것으로 밝혔다.

이는 毛沢東의 外交戰略을 수행하는 임무를 全的으로 위임받고

있는 周恩來의 발언임이 분명한 이상 中共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간주될만 하다. 6)

中共당국의 이같은 태도는 1965年 韓日基本條約 체결당시에 비해 하나의 큰 轉換으로 보아도 좋을것 같다. 당시(65년6월26일) 中共당국은 韓日條約을 가리켜 『美帝國主義가 朝鮮을 영구히 분열시켜 일본과 南朝鮮을 미국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부응하도록 하려는 하나의 중대한 준비과정』이라고 비난했다. 7)

그런데 지난 73년5월 周恩來는 「캐나다」의 「맥도날드」資源相에게 바로 그 일본과 南韓을 상대로 大陸棚협상에 임할 뜻을 밝힌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중요한 정책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우리政府는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그들과 협상할 용의가 있음을 누차 公開적으로 천명했다. 그러나 이는 中共당국이 제3者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상용의를 표명한 것과는 너무나도 對照的인 방법이었다. 최근 「카라카스」에서 國際海洋法會議가 열리기도 했지만 여기에 참석한 韓·日·中共대표단은 물론이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北韓까지도 포함한 광범위한 利害關係대상을 비밀 또는 非公開裡에 접촉해 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일것 같다.

1958년7월 당시 일본으로서의 對中共접근이 매우 어려운 현실로 생각되었을때 日本議會와 政府당국자들 사이에는 第三國에 있어서의 大使級會談의 가능성을 토의한적이 있다. 당시 일본 衆議院 外交委員이던 森島守人 社會黨 소속의원은 岸信介수상에게 「모스크바」 또는 「제네바」등의 第三國에서 일본의 外交官吏가 비공식으로 中共의 관리들과 접촉하는등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그후(64

년경) 일본정부는 사실 A·A지역會議등에서 中共대표들과 만나 國交正常化를 위한 探索작업을 示唆한 바 있었다. 8)

더구나 大陸棚문제협상에 관한한 中共과 일본 및 南·北韓은 자기 입장은 다르지만 58년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1차國際海洋法會議에서 채택하고 64년 美·蘇등 40여개국에 비준한 『大陸棚에 관한 조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어 이문제에 관한 利害當事者로서 어떤 형태의 협상이 가능할 뿐더러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특히 韓日양국은 지난 73년 7월 4일 완전타결을 본 『黃海 및 東支那海 大陸棚協定』에서 『이지역에 대한 第三國의 管轄權主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박음으로써 中共등 周邊國의 大陸棚領有權주장에는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9)

둘째로 최근 南北韓 사이에 새로운 緊張조성요인이 되고있는 西海 5개島嶼 문제의 해결을 위해 中共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다.

韓國停戰協定 13b項에 그 管轄權이 規制되어있는 西海 5개島嶼 (白翎島·大靑島·小靑島·延坪島·牛島)는 하나의 軍事的인 現狀이다. 즉 이 5개도서와 『그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國際聯合軍사령관의 軍事統制下에 남겨둔다』는 協定條文이 명시하듯 그것은 전투행위의 중단과 더불어 派生된 일종의 『定型化된 상황』일 뿐 排他的인 領土와 領海가 共認되어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바짝 接統해 있는 北韓 및 그 統治下에 있는 지역(蔚津半島를 前哨로 한 北韓統制下의 西海岸一帶)은 언제든지 軍事的으로 先制攻擄을 감행할 수 있는 하나의 『處

犯지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北傀는 이지역을 언제나 『先攻擧·後協商』을 위한 標的으로 삼을수 있다. 그래서 이지역의 긴장상태는 恒在的인 것이며 그것이 최초로 나타난것이 73년 10월 말경 北傀가 우리측에게 이지역의 『通行制限』을 들고 나온 것이었다.

北傀는 이지역에서 왜 『通行制限』을 들고 나오면서 武装船舶들을 5개도서의 小靑島沿岸 1천3백「야드」까지 침투시켰는가¹⁰⁾

1. 「유엔」軍사령부의 解体가능성에 대비 「유엔」軍사령관 관할하에 있는것으로 규정돼있는 이지역에 대한 새로운 帰屬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停戰協定이 만약 平和協定으로 變形될 경우 協定조인의 一方인 「유엔」軍사령관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西海5개도서에 대한 새로운 帰屬문제가 등장할 것은 당연한 帰結이다.

2. 北傀는 休戰後 실질적으로 廢鎖상태에 있던 海州灣 및 港灣의 일부를 蘇·中共선박들에게 開港하게 됨으로써 이지역을 자유로이 통과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北傀는 韓國의 安保태세와 「유엔」 및 「유엔」軍의 対応태세등을 点檢하려는 副次的인 목적하에 西海에서의 각종挑擧를 시도하였으리라 짐작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상기 두가지 이유에 있었던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함이 마땅할 것인가

西海 5개 도서는 우리에게 있어 北韓에 대한 情報·前進·補給 등 軍事的으로 多目的的인 意義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軍事的인 의의는 前正面에 對峙한 北傀의 그것들에 비할 때 數量的으로나 質的인 면에서 劣勢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非軍事的인 活用的 媒体로 轉換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強한 敵의 方策에는 똑같이 頑固한 方策으로, 맞서느니보다 柔軟한 대응책으로 우회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效果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즉 白翎島를 비롯하여 北傀의 海陸양면 「미사일」射程圈內에 거의 無防備상태로 露出돼있는 西海 5개 섬들을 平和的으로 개방한다면 이 지역 일대에 구축한 北傀의 軍事적 要塞化는 자연히 무의미 무효화(Nullify)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効果적인 危機관리(Crisis Management) 즉 安保대책일 수가 있다.

여기서 白翎島 등 西海 5개 도서를 구체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개발~개방하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만 理解를 돕기 위해 白翎島를 제 2의 香港과 같은 自由貿易港으로 개발하여 中·蘇·美·日 등 4개국을 포함한 각국의 선박 또는 航空(民間)의 寄着 및 通路化를 期함으로써 이 지역을 전쟁재발의 安全圈的 緩衝지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白翎島가 對北傀 戰略·戰術上의 중요한 情報基地이기 때문에 이것을 非軍事的인 목적하에 더구나 敵性國까지 포함하여 개방하면 그 정보기지적 기능과 가치를 상실할 것이라는 反論도 있겠으나

香港이 共產·非共產세계에서 공히 중요한 정보集散地的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면 보다 유효한 정보기지가 될수도 있을것이다.

中·蘇 양국의 韓半島에 대한 利害관계는 앞으로 당분간 合致點을 찾지 못할것이 분명하다. 中共의 新제3世界論은 美·蘇양超강대국의 영향력을 극도로 排除하려는 그들의 意志이며 이것은 美·蘇간의 和解나 더우기 蘇聯의 安保體制와 같은것으로 해소될 수는 없는것이다. 韓國은 따라서 設使 「이네올로기」를 超越한다해도 中·蘇양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초월한 접근을 생각할 수 없다.

특히 美·蘇간의 긴장완화는 一面 利害를 달리하는 中·小國 상호간의 『代理전쟁의 自由化』를 촉구할지도 모른다.

그 代理전쟁의 유형은 이미 中東지역에서 보았다. 또다른 代理전쟁이 韓半島에서 재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美·蘇의 和解가 더한층 定型化 될때 南北韓은 「이스라엘」~ 아랍 또는 印度·「파키스탄」型的 격돌을 촉발시킬 더많은 구실과 每件을 갖추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강대국 利害관계를 대신해서 南北韓이 또다시 격돌을 하게 될 가능성은 아직도 많으며 中共은 北傀에게 그것을 충동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틈바구니를 헤쳐나감에 있어 韓國이 전쟁을 피하려면 그 恆在的 위기를 효과적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길밖에 없을 것이다.

그 효과적, 실제적 방법의 하나가 西海5島嶼의 對中·蘇개방이라고 생각된다.

이 西海 5개도서의 對中·蘇개방案은 우선 제1차적으로 韓半島 자체의 安保에 기여할 것이 틀림없지만 그와 함께 中·蘇 양국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安全保障策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첫째 中共의 입장에서 볼때 더욱 바람직 할것 같다. 周知되고 있는바와 같이 蘇聯의 對中共封鎖정책은 날이 갈수록 硬化되고 있다. 지난 72년 8월 10일자 「뉴욕 타임즈」紙가 밝힌 바에 따르면 蘇聯은 그 保有兵力(地上軍)의 약3분의1에 해당하는 49개師團을 中·蘇국경에 배치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소련이 莫強을 자랑하는 大戰車集團軍도 포함되어 있어 中共으로서는 언제 소련軍의 電擊的인 來襲이 있을지 모를 정도의 恐怖心을 늘 갖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를 拠点으로 한 소련의 太平洋艦隊는 韓半島를 한바퀴 둘러 北隄측 西海沿岸을 또 하나의 拠点으로 삼고 은연중에 中共을 위협하는 包圍網을 압축하고 있다. 印度洋에서 「말라카」海峽을 거쳐 沖繩 및 台灣 近海와 大韓海峽 「블라디보스토크」線을 연결하고 있는 소련太平洋艦隊는 總屯數면에서 美7艦隊에 버금가는 약70万吨台라고 한다. 이것은 비단 中共뿐이 아니라 日益 成長하는 日本海上自衛隊와 美7艦隊등에 대해서도 다분히 牽制的·威脅的·示威的인 효과를 노린것이지만 蘇聯海軍이 특히 印度洋에서 한국의 東海를 연결하고 있는 線은 이지역에서의 美國海軍의 『退役』과 「타이밍」을 맞춘 對中共封鎖進出을 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우연치 않은 움직임을 가리켜 中共의 指導層은 美·蘇超強대國 「블럭」에 의한 『世界分割支配劃策』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

이다.

하지만 中共은 印度洋에서 한국의 東海까지를 잇는 광대한 海域을 무대로 『拔越하는』 美·蘇양대국 海軍刀에 맞설 어떠한 수단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당분간은 가질 생각도 못할 것이다.

그러한 中共에게 있어 西海 白翎島일대가 非軍事的이나마 開放된다면 內心 상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 될것이다. 그렇다고 白翎島를 前世紀的인 『租借地化』하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또한 中共에게 軍事戰略上 또는 國家利害上 결과적으로 이롭다고 하여 蘇聯이나 기타 제3국에게 반드시 不利해질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此際에 (올가을 또는 來年가을 「유엔」總회에서 駐韓「유엔」軍의 解体를 결의할지도 모를 不利한 형세를 앞둔) 白翎島를 비롯한 西海 5개도서의 平和的 전환을 韓國政府의 主導下에 시도해 보는것은 의미가 있을뿐 아니라 어느면 시급한 課題이기도 하다.

註

- 註 1) コリア評論 151号, p23
- 註 2) 朝鮮日報・한국日報 74.6.28일자
- 註 3) 毛沢東選集第4卷 p.1467.
人民日報 64.12.12
- 註 4) 北京週報 74年9月号
日本毎日新聞 74.6.4
- 註 5) The China Quarterly Oct/Dec, 1973(No.56) p.706
Geoffrey Hudsons Article on "Japanese Attitudes and
Policies Toward China in 1973"
- 註 6) 中華民國 国防部情報局刊(中共文化革命重要文書集 p. 202)
- 註 7) 日本朝日新聞刊(1972年) 資料, 「日本と中国45~71」
p.202, 203
- 註 8) 日本朝日新聞刊(72年) 「日本と中国」 p.34
- 註 9) 朝鮮日報 73.7.5일자
- 註 10) 1974.7.1, 제3번 52차軍事停戰委本會談中 「유엔」료측 발언

第 三 部

- 1 . 对 中 、 蘇 接 近 斗 戰 略 的 目 標
- 2 . 国 交 以 前 斗 交 流 試 圖
- 3 . 間 接 的 交 流 斗 方 案

一. 對中·소접근의 戰略的 目標

우리나라가 中共 및 蘇聯과 接近外交를 벌이는데는 韓國이 능역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에 남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서 서로 對立關係를 풀지 않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그것이다.

北韓과 韓國이란 두 分斷된 實體, 그리고 北韓이 우선으로 기대고 있는 中共 및 소련과 美國·日本·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이고 보면, 소련 및 中共과 接近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은 한民族이 하나로 묶어진 상태에서 接近하는 것 보다 그 폭이 심히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또 周邊의 「힘의균형」이나 國際상황의 變遷에 따라 韓國이 國際政治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힘이 상대적으로 어느정도의 폭을 갖고 起伏하게 된다.

따라서 韓國이 蘇聯 및 中共과의 接近을 시도하려면 현재의 국제정세, 한국과 인접국가와의 관계, 아시아에 있어서의 한국의 현재의 위치를 기점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어찌서 蘇聯 및 中共과 接近外交를 시도해야 하며, 어떤 外交目標을 設定해야 할까? 우선 이 問題부터 정해 능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反共을 버릴 수 없이 유지하는, 특히 분단국인 韓國이 共產主義를 표방하는 두나라와 接近外交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外交目標가 있어야 한다. 이것 없이, 그리고 단위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그러한 접근은 리보다는 고통을 가져올 憂慮가 있다.

그러나 外交가 軍事力이나 마찬가지로 國際問題의 秩序있는 解決의 手段인 동시에 国力을 높히는 武器인 以上 韓国外交의 活潑한 世界進出은 오늘날의 國際社會에서 한 主權國家가 그의 存在가치를 높이는데 必要不可決한 것이다.

오늘날의 國際事情 範圍를 좁혀서 우리 韓國이 位置하고 있는 東北亞의 사정은 緊張의 緩和가 要請되는 곳으로 특히 分斷된 韓國에는 그러한 緊張緩和가 切實하다.

우리가 蘇聯 및 中共과 接近을 시도하는데 있어서는 北韓과 韓國의 緊張解消를 考慮해야 한다.

現在의 여건으로 보아 統一의 現實的 可能性은 생각할 수 없다. 對話의 단절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은 現在와 같이 南과北이 다시 緊張을 높혀가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國際事情은 그것을 要求하고 있다.

西獨이 東유럽과 接近하면서 시도했던 때도 東獨과의 懸賞고정이 선행되었기에 비로서 可能했다.

北韓과 蘇聯, 北韓과 中共의 關係는 앞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한다. 이러한 北韓과 蘇聯 및 中共關係를 감안할 때 北韓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는 體戰線의 軍事的 타과 政策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北韓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蘇聯 및 中共과 의 接近을 통해서 北韓이 現在의 韓半島 政策을 수정할 수 있도

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蘇聯이나 中共은 美國・日本과 함께 한반도의 「현상고정」을 지금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前章들에서 지적하였듯이 가령 韓國이 南北對話만을 통해서 현상을 고정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中共이나 소련의 보장없이 는 불안한 현상고정일 수 밖에 없다. 韓半島의 새로운 安全組織에 대한 國際的 보장이라는 점에서 中共・蘇聯의 平和保障은 절대 必要한 요소이다. 또 이러한 平和保障은 北韓이 軍事의 統一政策을 기반으로 解放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쌓아올린 20余年에 걸친 軍事體制를 억제내지 解消시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外交目標의 뚜렷한 性格 設定은 韓國이 蘇聯 및 中共과 接近을 시도할 의향이 있는 한 必要不可決한 것으로 보며 그것은 二次大戦後 分断된 三個國, 즉 獨逸・韓國・越南중 제일 먼저 東歐國과 接近・國交關係로 發展시킨 西獨경우에도 마찬가지 길을 걸었다.

西獨은 「先獨逸 問題處理 후 緊張緩和」란 外交目標을 오래동안 고수했었다.

그러나 그 圖式을 버리브로서 東歐國과의 接近이 可能했던 것이다.

1966年 12月 14日 「파리」의 NATO 各료이사회에 出席했던 當時의 「브란트」外相은 회의석상에서 東西緊張緩和를 촉진해야 할 것을 強調하고 「컴유니케」의 부속문서에서는 「獨逸問題解決에는 民族自決의 權利에 입각하여 「유럽」大陸의 緊張緩和를 통해 平和的 方法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것은 20여년 걸쳐 주장해온 「獨逸問題解決 없이는 「유럽」의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체제를 밑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韓國역시 南北問題解決이 선행될 수 없는 現狀이고 보면 「對中·蘇 接近後, 緊張緩和, 그후 南北問題解決」이란 原則을 세울 수 있다.

二次大戰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데올로기」를 달리 하는 나라들이 적대내지 反目關係를 清算하고 우호를 增進 국교를 改善한 例는 많다.

이러한 나라들의 서로의 接近方法은 여러가지 공식을 유도케 했지만 이 선례들의 대부분은 韓國의 對中·蘇 接近시도에는 크게 참고가 될 수 없다. 두개의 關係當事國의 接近은 그 나라들이 속해있는 地域, 利害關係, 周辺情勢 人種的, 歷史的, 時代的 여러가지 문제가 고려되는 법이고 그에 따라 國際政治上的 接近外交의 「패턴」이 여럿 나올 수 있겠는데, 分斷國이 다른 한쪽의 分斷國 및 密接한 나라들과 接近을 시도, 成功을 거둔에는 西獨밖에 없다. 이 西獨의 蘇聯 및 東歐國에 대한 接近外交의 目的이 우리나라가 蘇聯 및 中共과 接近을 시도하는데 반드시 같은 形態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分斷國이란 共通된 性格의 國家라는 점, 한쪽은 民主体制를 標榜하고 다른 한쪽에는 社會主義體制를 標榜하고 있으며, 民主体制를 標榜하는 한쪽의 分斷國이 社會主義體制의 나라와 接近한다는 形式 면에서는 같은 性格을 지니고 있다.

또 緊張緩和가 必要했다는 점에서도 같다

따라서 韓國이 蘇聯 및 中共과 接近外交를 試圖하는데 있어서는 西獨의 東方政策으로 일컬어지는 對東歐圈 接近 도식을 면밀히 참고할 必設가 있다.

우리나라가 蘇聯 및 中共과 接近하는데는 韓半島의 현상고정, 北韓과의 共存을 전제로 해야하지만 거기에는 問題가 따른다. 그것은 「民族國家」의 갈등으로도 表現될 수 있는 問題이다.

韓國과 北韓의 公式的인 對話의 始發을 告했던 7.4 共同聲明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그 쌍방은 다음과 같은 祖國統一原則들에 合意를 보았다.

첫째 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外勢의 干涉를 받음이 없이 自主적으로 解決해야 한다.

둘째, 統一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實現되어야 한다.

세계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 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것은 分明히 南·北의 關係를 對決에서 和解로 이끌어가려는 意志에 찬 것이었다. 그러나 「祖國統一原則」에 合意한다고 해도 그러한 統一의 可能性보다는 現狀固定을 위한 前段階로 우선 받아들이는 것이 보다 現實的이라고 여겨진다.

西獨이 東歐圈과 接近外交를 벌이면서 취한 現狀固定의 方法은 「한民族·두國家」란 색다른 도식이었다.

물론 이러한 公式이 韓國의 境遇에 꼭 適用된다고는 볼 수 없

지만, 이와 유사한 또는 이를 참고로 어떤 독특한 形態의 과도적 共存關係의 圖式을 끌어내는 것이 韓國과 北韓의 共存關係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問題는 北韓側이 韓國에서 「이니시 아티브」를 쥐고 提示하는 現狀固定을 위한 方案에 어느정도 同調하느냐에 있다.

韓國이 蘇聯과 中共과 接近을 試圖하는데 있어서 어째서 北韓과의 對決의 緩和가 必要한가 하는 回答은 앞의章들에서 본 바와 같이 中共·北韓, 蘇聯과 北韓의 關係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不可能할 境遇라 하더라도 韓國은 北韓에 대해 積極적으로 共存을 바라는 外形上의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對社會主義國 接近外交를 위한 國際的 輿論을 우리에게 有利하게 이끄는 데 必要한 戰術의 하나일 수도 있다.

北韓은 韓國에서 蘇聯내지 中共과 接近外交를 試圖하는 데는 相當한 沮止作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先例로 西獨의 東方外交를 推進하던 初期에 일어났던 한 事件을 들 수 있다.

蘇聯의 「체코」 侵攻事件이 그것이고 그때문에 西獨이 推進하던 東方外交는 深刻한 再檢討를 하지 않을 수 없는 處地에 물렸었다. 西獨은 1967年 1月 「루마니아」와 國交를 樹立하므로써 東方外交의 첫 결실을 보고 이어 1968年 1月 에는 「유고슬라비아」와도 國交再開를 實現시키게 되었다. 그런데 西獨은 이러한 結果를 들과구로 하여 東獨의 어깨넘어로 東歐여러나라와 仙別的인 交渉을

進進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蘇聯軍의 「체코」進駐는 이러한 西獨의 對東歐圈 外交戰略線衛에 背기를 박았던 것이다.

蘇聯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制限主權論을 쳐들었기 때문에 東歐帝國이 西獨과 멋대로 協商去來하는 것이 얼마나 危險한 불자난인가를 무력개입이란 거치른 치르방법으로 시위했던 것이다. 더구나 東獨의 「올브리히트」政權이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蘇聯軍의 進入에 積極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東獨을 배틀리고 西獨이 東「유럽」의 여러나라와 關係를 改善하는 것이 不可能하다는 것을 西獨에게 깨달게 했던 것이다.

勿論 當時의 國際事情과 오늘의 國際事情은 많이 다르다. 또 蘇聯이 北韓을 보는 것과 東獨을 보는 點도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가령 蘇聯의 이해관계의 點도가 東獨과 蘇聯·北韓과 蘇聯 두경우에 서로 다르다고 가정하더라도 韓國이 蘇聯과 接近하는 데는 北韓을 도외시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韓國이 蘇聯·中共과 同時에 接近해야 하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에 優先順位를 두어야 하느냐하는 點을 問題로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서로 相反하는 社會主義 집단과 동시에 接近하는 것이 韓國의 國家利益에 부합되기는 한다. 韓國이 놓여있는 地政學的 位置나, 國際政治的인 側面에서 볼 때 韓國은 中共과 蘇聯의 紛爭에서 엄격히 中立을 지켜야 할 것이 必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現實論으로 볼 때 가령 蘇聯과 中共에 대해 同時에 接近外交를 같은 힘과 력으로 推進한다고 해도 이것이 同時에 이루

어질 전망은 희박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實現可能한 쪽을 중점적으로 먼저 擇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西獨의 共產圈接近과는 다른 어려움이 韓國의 對蘇, 對中共接近에는 있다. 西獨은 「유럽」國家이며, 「유럽」의 共產圈國家와 接近하고 中共과는 接近外交를 서서히 시도해도 아무런 問題가 제기되지 않았다.

「아시아」國家인 韓國으로는 蘇聯보다는 中共쪽과 먼저 接近外交를 試圖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現實의 條件은 오히려 中共보다는 蘇聯과의 接近可能性이 보다 많은 것 같다.

對話가 斷絶된 國家가 接近外交를 벌이려면 對話를 트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나 부터 찾아내야 할 것이다.

한나라가 다른 한나라와 接觸을 갖기위해서 우선 問題되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關係」가 양쪽에 公平하게 適用될 수 있느냐에 있다. 한쪽나라와 다른 한나라가 接近하려할 때 相對國이 얻는것 없이 이에 응하는 일은 상상키 困難하다.

국교전 교류의 方法으로는 經濟交流, 文化, 學術交流, 「스포츠」交流 등 갖가지 形態가 있다. 이중 어떠한 形態의 交流를 하더라도 과연 상대방이 「주고~받는圖式」에서 必要한 것이 있느냐가 문제되게 된다.

西獨이 東部「유럽」여러나라와 가진 국교전에 交流하는 方法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던 것은 經濟交流였다.

西独이 東部「유럽」과 經濟交流가 可能했고 이것이 국고전 교류의 상당히 큰 比重을 차지했던 것은 東歐國家들이 西独과의 經濟交流의 必要性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蘇聯 및 中共과 經濟交流를 통한 接近外交를 벌이는데 있어서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的 問題中의 하나이다.

二次大戰의 敗戰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西独이 「마샬플랜」(1956.12.31 일 까지 西独에 39 億 「달러」)에 의한 援助로 經濟的 再起의 길을 걸었고 1950년에는 經濟水準이 戰前水準에 이르러 1958년부터는 이미 外國에 援助를 시작했다. 1961년에는 對外援助를 전담하는 經濟協力省을 내각에 두기 까지 이르렀다.

또 1967년에 西独의 OECD (經濟協力開發機構) 諸國과의 貿易은 全體의 70%를 차지했으며, EEC (歐共市)와의 貿易도 38%나 되었다. 當時 西独이 東「유럽」과의 貿易은 4% 內外였으나 對東歐貿易은 相當히 빠른 성장을 보였고 그 성장이 가속될 전망은 西独이 경제대국으로서 갖는 国力으로 해서 틀림없는 것이었다. 西独의 對外經濟協力은 매년 國民所得의 0.8%로 最近에는 年間 7 億 「달러」에 달했다.

東部「유럽」은 西独과의 經濟交流의 必要性을 일찍부터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交流가 實지로 이루어지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必要했다. 그 原因은 東歐國家들이 蘇聯의 干涉내지 影響을 깊게 받았기 때문이다. 蘇聯이 東歐의 對西独 接近을 특인 내지는 積極的으로 반대하지 않게 되므로서 그것은 可能했던 것이다.

으로 하고 그 기능 역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지만 國交
 트에 있는 관제당사국의 상주동상사절단은 순수한 통상을 그 주목적
 의 상주동상사절단의 境遇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國交가
 의 성격은 國交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境遇와 國交가 없는 나라
 들은 西獨에도 이들 나라의 동상사절단이 상주했다. 동상사절단
 이 상주해 있었다.

「루마니아」의 수도「부다페스트」에는 西獨의 공식동상사절단
 「바르」 「루마니아」의 수도「브르레시타」, 「불가리아」의 수도「소
 이르다 4년전인 1963년부터 시작하여 「폴란드」의 수도「바르
 를 維持했었다.

「루마니아」를 포함한 周辺 東部「유럽」國家와 公式的인 經濟交流
 으로서 첫 걸음을 보았지만 이때까지 東獨은 西獨은 數年에 걸쳐
 西獨이었던 東國政策은 67년 1월 「루마니아」와 國交를 樹立하
 고다 밝혀지게 되었다.

原則의 포기를 시사했을 때 부터 西獨과 東部「유럽」의 經濟交流는
 對東獨經濟交流는 結果上 아무런 전망이었다. 西獨에서「할슈타인」
 말했던 「할슈타인」原則의 수정이 기정사실화 되가지는 西獨의
 西獨의 對東部「유럽」 接近은 그리웠다. 西獨이 1955년의 宣

國家가 政治的으로 이를 인정하는데의 問題와 연관을 갖게된다.
 는 관제당사국과, 그리고 관제당사국에게 影響을 미치는 보다 큰
 인 側面의 交流가 안되더라도 간후 可能하지만 公式交流나 接觸의
 非公式的인 經濟交流나 間接的인 經濟交流의 境遇는 반드시 政治的

以前的 關係 당사국과의 상주 통상사절의 境遇는 그 기능의 活用
역하에 따라서는 外交的인 役割을 크게 할 수 있다. 특히 西
獨과 東部「유럽」의 통상사절의 境遇는 이런 外交的인 기능이 상당
히 컸다. 이 사절들은 一次的으로 通商交易의 擴大에 크게 기
여했지만, 아울러 西獨과 東部「유럽」의 緊張緩和에 相當한 寄與
를 했던 것은 否認 못할 事實이다.

이 通商使節의 交換이 지니는 國交前의 外交的인 接觸으로서의
重要性은 「닉슨」美國大統領의 中共訪問以後 생겨난 中共과 美國의
通商使節 交換으로도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소련 및 中共과의 接近外交를 꾀기위한 手
段으로서의 通商問題가 使節交換으로 進展할 可能性은 당분간 희
박하다. 使節交換으로 간다는 것은 國交再開의 第一段階가 成熟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境遇는 그와
같은 段階로 跳躍하기 위한 立場에 아직 놓여있지 않다. 첫째
政治的인 次元에서 볼 때 그렇고 둘째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 때
도 그러하다.

西獨과 蘇聯의 和解에서는 이 두가지 側面에서 양쪽이 「주고
받는」것에 대한 公約數를 찾아낼 수 있었다.

政治的인 側面에서 볼 때 西獨과 蘇聯은 두나라의 和解를 통해
각기 노리는 것을 얻어낼 수 있었다. 西獨은 이 和解를 통해
東方外交의 礎石과 뼈대를 구축했고 蘇聯은 「유럽」에서 「유
럽」安委會議에 대한 지지를 얻게될 터전과 함께 蘇聯의 東部

「유럽」 영향력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經濟的인 면에서
도 西獨과 蘇聯은 「주고 받는」圖式에서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位置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면에서 보면 蘇聯은 더큰 것을 西獨
으로 부터 얻어냈다.

當時 蘇聯은 西獨보다 전자과학 분야에서 훨씬 뒤진 實情이었고
이것은 어느 意味에서는 蘇聯에게 큰 경중을 올렸던 만큼 蘇聯은
經濟協助와 함께 西獨의 技術援助도 切實이 要求되고 있던 實情이
었다. 當時 蘇聯은 西獨과 經濟的으로 接近하는 것이 얼마만큼
必要했는지는 다음과 같은 한구절로 說明될 수 있을 것 같다.

「빌리브란트」西獨首相과 「알렉세이 코시킨」 蘇聯首相이 「모스
크바」條約에 조인한지 불과 3주일후 西獨과 蘇聯간의 經濟協助는
이미 본 條約에 올랐다」고 전제한 「타임」지는 註^① 蘇聯이 切實
히 바라던 대형「트럭」을 연간 15만대 생산할 수 있게되었다고
말했다. 蘇聯은 이때까지 연간 50萬대의 「트럭」생산 능력밖에
못갖고 있었고 그나마 그중 90%가 적재량 3t 이하의 경형「트
럭」 뿐이었다.

二. 國交以前의 交流試圖

韓國이 中共·소련등과 경제교류를 갖는데 있어서 제도를 달리 하는 국가간의 경제교류란 점에서 같은 제도를 가진 국가간의 경제교류보다는 어려운 조건이 붙게된다. 경제제도상 가장 뚜렷한 차이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서 찾아볼수있고, 이러한 基本的인 차이는 생산에서의 우선순위문제와도 결부되고 비록 이데올로기의 對決의 時代가 和解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고는 하나 相互間的 交易이 우선하게되고 앞으로도 우선해가는 추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계속될 전망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圈內 무역과 역외인 對資本主義國의 무역비율은 65년에 각각 69.9% 와 30.1% 71년에는 이 비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각각 67.8%와 32.2%로 나타나고 있지만 역내무역위주라는 경향은 여전히 면하지 않고있다. 註2)

이같은 추세는 같은 동구권에 속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西歐와의 관계에서 어느정도 앞서나간 나라와 덜 앞서나간 나라와는 차이가 있다.

東歐圈중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가장 덜받는 나라인 유고슬라비아의 경우는 71년도 對資本主義國과의 무역비중이 73.2%로 거의 무역면에서 資本主義圈에 의존하고 있다.

또 루마니아의 경우는 다른 東歐國국가보다 對資本主義國역량이 훨씬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65년에 35.0%이던것이 71년에

는 44.7%로 부러 9.7%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경우는 같은시기에 對資本主義交易이 31.2%에서 34.6%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가 소련과 경제교류를 하려면 우선 34.6%의 교역량을 높이고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소련이 對資本主義국가들과 교역하는 나라들의 대부분이 소련과 국교를 갖고 있다는 점 또 이들 국가들은 소련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있는 상품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이 자체생산 만으로는 부족한 물품이 무엇일까? 소련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물품으로는 전자기기, 기계류, 과학기재 직물,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대충을 차지하는 품목은 전자器械 및 운반용기기를 주로한 기계류로 연간 1,222,073 천달러로 총수입의 40.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전분기기 과학기기를 주로한 잡제품으로 269,266 천달러로 9.0% 그리고 다음이 직물 및 섬유제품, 비금속 광물제품등을 주로한 원료별제품으로 745,372 천달러로, 26.0%를 차지한다.

한편 中共의 경우는 소련과는 다른 무역구조면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中共에서 바라는 상품도 소련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 많다.

中共의 대외무역은 GNP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소련보다 훨씬 낮다. 또 경제성장의 通商額의 증감이 1년을 時差로 서로 상관되면서 農業生産과의 높은 상관關係를 보이고 있다. 中共의 GNP 대무역의존은 71年度에 5.5%에 불과하며 소련(7.7%), 미국

(8.5%)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中共은 소련이나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의 教條的인 硬直性에도 불구하고 西方國家와의 무역량은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中·蘇 분쟁과도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東歐國중 알바니아와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는 修正正義라 하여 사실상 관계를 단절한 상태에 있다는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中·蘇 對立으로 해서 60년 이후 東歐國과의 무역은 두들어지게 줄어들고 있다.

中共이 西方측과 交易을 하고있는 주요한 나라들은 日本, 英國, 西獨, 프랑스, 이탈리아, 白耳義, 룩셈부르크, 오스트레리아, 유고슬라비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香港, 싱가포르, 실론, 파키스탄 등이고 닉슨美國 大統領의 中共방문 이후는 美國과의 교역량도 현저히 늘어나고 있다.

中共의 對西歐國무역은 61~63년을 경계로 해서 급격히 늘어났고 이이후는 東歐國과의 무역고를 앞지르게 되었다.

특히 日本과의 무역고는 급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Fear Year Book '72에 따르면 70년도에 日本으로 부터의 수입은 5억 6천8백92萬달러로 가장높다. (對日수출은 2억5천3백84萬달러로 4억6천7백1萬달러의 香港다음의 2位)

日本의 對中共 수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철강 기계류로 그비중은 68~69년 평균 53.1%에서 70~71년에는 평균 62.5%로 늘어났다.

中共은 対日本 무역뿐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교역량은 계속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71년후반부터 72년에 걸쳐서 영국, 프랑스 등에 무역代表團을 파견한 후로는 이러한 경향이 부쩍늘어난다.

그러나 韓國이 中共과 교역을 하려면 가장 큰 장애인 정치적인 제약외에도 경제면에서 불대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품구성면에서 또 산업구성면에서 그리고 國際分업편제상의 측면에서 그렇다. 中共의 무역품구성을 보면 수입의 대종을 차지하던 식료품은 최근 감소되는 경향을 계속 보여오고 있고 특히 美·中共화해후는 美國이 이면에 침투를 활발이 꾀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설사 식료품을 수출할 힘이 있다해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된다. 더구나 식료품을 中共에 수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직 없는 형편이다.

식료품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中共의 수입품인 鐵鋼·機械器械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対中共 교역 가능품목으로 잡을 수가 없다. 中共에서는 鐵鋼·機械器械의 수입에서는 플랜트나 기계설비의 수입을 바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플랜트를 수출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 화학비료의 경우이다. 이 품목은 주로 日本에 의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 품목은 수출가능성이 짙은 품목으로 여겨진다. 첫째는 日本과 우리나라의 합작교역가능성을 지적할 수있고 둘째는 日本의 비료코스트가 높아질 전망이고 보면 경쟁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

의 가능성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짜임새있는 戰略구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美國, EC, 日本 등 世界의 경제적 3국과 경쟁을 벌이기에는 아직 우리의 경제력은 미약한 형편이고 따라서 당분간은 淸中淸우역을 위한 戰略目標을 이들 3大經濟極중 어느 나라 極을 통하거나 또는 이들 3極을 모두 통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것으로 여겨진다.

국교전 교류方法으로 문화, 학술, 스포츠의 교류가 등장하고 있다.

닉슨 美國 大統領의 中共방 문가능성을 豫告했던 卓球外交는 스포츠를 통한 국교전 교류의 한 패턴을 나타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국교전 교류의 수단은 형식상 政治性을 배제할수 있다는데서 접근의 한 실마리를 마련해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를 가진 교류방법 역시 경제교류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약을 받을수 있다.

文化, 學術, 스포츠의 교류는 그것이 국교전 교류의 한 계기가 될수있는 측면과 어떤 政治的인 決定의 한 결과로 나타나는 측면을 갖고있다.

中共과 美國의 卓球外交는 그것이 美國과 中共을 접근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기보다는 美國과 中共이 접근할수있는 必要性때문에 생긴 한 결과로 볼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交流들을 국교전 접촉을 위한 수단으로 利用할수있는 측면은 있고 이러한 교류방법을 外交나 경제交流와 平行시킬 경우 交流의 템포를

말리할 수 있다. 또 對話의 通路를 넓힐수 있는 면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소련 및 中共과 學術 문화(스포츠 제외) 교류를 하기위해서는 다른 국교전 교섭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일정한 조건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또 그러한 交流의 可能性이 두나라만의 交流이나 아니면 國際的인 性格을 띤 것이냐에 따라 그것이 국교전 交流로서의 價値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다. 國際學術會議나 「올림픽 같은 것에서 韓國이 諫聯이나 中共의 당사자들과 만나는 境遇와 韓國의 學術會議에 諫聯이나 中共의 學者를 초청하고 또 「스포츠」面에서 초청경기를 갖는 境遇와는 국교전 交流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學術, 文化面에서 볼때 우리나라는 諫聯이나 中共과 直接交流로 할 수 있는 條件을 구비했는지가 이 交流를 可能케 하는 條件이 될 것이다. 이와같은 交流를 위해서는 첫째 諫聯이 우리나라에 대한 學術·文化에 대한 要求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것의 價値에 대한 理解가 있어야 하고 셋째 世제 理念的인 반발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條件들이 충족되지 않는한 이 分野를 통한 直接的인 交流는 相當히 「좁은 門」을 거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對中共·對諫接近을 바라는 立場이라면 이 좁은 門을 지나서라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接觸을 위한 通路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通路는 몹시 制限的인 성격을 갖고있다. 이 通路란

대체로 旅行, 視察, 留學, 會議, 文書, 서적, 정보 등의 交換인데 이런 交換의 流通은 국교전이라는 制約때문에 심히 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交流의 境遇 그 交流의 手段 자체는 非政治的인 性질 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國交前이란 政治 問題에 부딪히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文化, 學術, 交流를 위한 段階적 接觸을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探索的 接觸이다. 우리나라는 이 면에서의 接觸은 可能하며 이미 발판을 붙일 수 있는 段階에 들어선 것 같다.

지난 7月에는 音樂家 鄭明勳이 비록 美國旅券을 갖고 들어가는 했지만 「모스크바」의 「차이콥스키」 音樂祭에 참석 피아노부 분에서 2위를 獲得했다.

그러나 이것은 蘇聯과 韓國과의 本格的인 交流로 發展할 可能性을 시사했을 뿐으로 全面的인 交流로 發展하려면 여러 난관이 있고 그 성숙시기도 예측하기 어렵다.

學術, 文化, 「스포츠」交流는 非政治的인 속성을 가졌으면서도 그러한 交流를 兩國間에 가속시키려면 政治的인 벽에 부딪치는데다가 蘇聯이나 中共이 韓國을 보는 눈과 韓國의 對外政策, 北韓의 中共이 나 蘇聯에 대한 作用 등의 영향을 단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三 . 간접적交流의 方案

우리나라의 對蘇·中共接近에서 間接的인 交流防法은 直接交流를 통한 實規 可能性이 높다 하더라도 接近에 上昇效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蘇聯과의 接近을 試圖하는 데는 東歐國의 第3國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接近하는 것이 中共에 대한 間接接近보다 많은 경로가 있다. 그것은 오늘날 蘇聯과 다른 東歐國의 다른 나라들과의 關係가 比較的 安定된 時期에 들어서 있다는 時代的인 흐름 때문이다. 西獨이 東部「유럽」과 接近하던 時期에 어려운 問題를 던져주었던 「체코슬로바키아」事件이나 「헝가리」事件 같은 것이 일어날 緊張感은 東歐의 蘇聯間에서 찾아볼 수 없다.

東部「유럽」과 蘇聯과의 關係는 經濟的인 側面에서 보다 더 긴밀해졌고 石油과농 以後의 東部「유럽」과 蘇聯의 關係는 한층 더 긴밀하게 될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石油위기때 蘇聯은 당초 相當한 量의 石油을 輸出하였고 東部「유럽」 여러나라는 그 때문에 中東의 石油戰略에 그다지 被動을 입지 않았다.

勿論 東部「유럽」과 蘇聯과의 關係는 단순한 經濟的인 利解關係 때문에 密接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軍事的, 政治的, 「이데올로기」的인 側面이 복잡해서 作用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經濟的인 側面만을 예어서 생각해 볼때 蘇聯은 방대한 資源을 갖고 있는 나라로 東歐여러 나라가 이러한 蘇聯과 系統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는 데는 그만큼 이득이 있다. 資源의 安定과 補給이 確保되고 있는 以上 蘇聯은 經濟面에서 東部「유럽」 여러 나라에 대해 相當한 強점을 갖고 있다. 또 東部「유럽」으로 볼 때에도 蘇聯과의 유대내지 蘇聯의 기반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가질 必妥가 없는 狀況이다.

그런데 東歐國이라고 하더라도 蘇聯과의 關係의 密度나 質이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蘇聯과의 間接接近外交를 위한 다리로 東部「유럽」을 利用하는 데는 이들 東部「유럽」國家들의 特性을 考慮에 넣어야 한다.

蘇聯과 보다 밀착된 東歐國家와의 交流를 우선시키면 그만큼 蘇聯과의 接近速度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따른다. 現在 우리나라가 蘇聯과 接近하려는 試圖는 대등한 立場에서의 接近이라기 보다 오히려 우리측이 열세에 놓여있는 狀況이므로 蘇聯과 밀착된 東部「유럽」國家와의 接近에서 蘇聯이 韓國과의 接近에 소극적인 態度일 때는 그 東部「유럽」 國家도 같은 路線을 따를 可能性은 지극히 높다.

반면 蘇聯의 支配를 덜 받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接近하는 데는 그만큼 장애도 적고 接近外交의 난점도 적다. 그러나 이 方法을 취할 경우 蘇聯과 接近하는데 얻을 수 있는 이득은 蘇聯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나라보다 훨씬 적어질 可能性이 있다.

事實 東歐國이지만 그 性格上 3가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蘇聯쪽으로 기울 나라들이고 둘째는 中立·非同盟을 標榜하

는 나라 세계는 中共전향의 나라이다. 蘇聯으로 기울거나 밀착된 나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蘇聯과 밀착되면서도 여러가지 條件으로 보아 우리가 經濟交流를 試圖해 볼만한 나라로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우선 들 수 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國家 財政面에서도 튼튼하고 先進工業國에 속한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코메콘」중에서도 債權國에 속하고 있다. 昨年末부터 今年에 걸쳐서 西部「유럽」으로부터의 輸入은 大幅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코슬로바키아」와 우선 經濟交流를 갖고 이 中間的인 媒介를 통해서 蘇聯과 接近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것이 不可能할 境遇는 또 한가지 手段이 있다. 우선 「체코」와 接近하는데 다른 3國의 힘을 빌리거나 그 第3國과 共同으로 經濟的 유대를 強化하는 對蘇·間接+間接이란 圖式이다.

「체코」와의 經濟交流를 위해 또는 이를 통한 政治的인 接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現在의 對外經濟構造上 日本을 利用할 수도 있을 것이다.

「日本과 「체코슬로바키아」간의 貿易은 1973년에는 72년에 비해 2.3배로 늘어났다. 73년에는 왕복 6千7百萬「달러」이므로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3千萬「달러」이던것이 1年동안에 6千7百萬「달러」로 는것은 相當한 것이다.」

日本은 「체코」뿐 아니라 다른 東歐國과의 經濟的 交流增進에 지금 相當한 熱을 올리고 있다.

다음 東歐國國家中 非同盟의 기수격인 「유고슬라비아」와의 交流

역시 對蘇接近을 위한 觸媒로서 試圖해볼만한 價值가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蘇聯의 굴레에서 벗어난 「유고슬라비아」는 政治, 軍事, 經濟, 모든面에서 다른 東部「유럽」 國家들과는 달리 蘇聯의 支配를 받지 않으며 非同盟外交를 하고 있다.

政治的인 體制는 다른 東部「유럽」처럼 社會主義的이지만 그 運, 營方法이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는 判異하다.

「유고슬라비아」는 中央集權的인 國家社會主義라는 形態는 或하지 않으며 經濟도 統制經濟보다 自由經濟體制에 가깝다. 또 自主管理社會主義라고 하는, 上層部 또는 中間階層이 아닌, 밑에서 부터 쌓아올리는 그런 方式이다, 企業도 勞動者정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經營하고 있다.」註④

이 나라는 經濟構造에 관한 西歐에 오히려 가까운 편이다. 經濟關係에서 蘇聯에 전혀 依存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貿易에서의 순위는 1위가 西獨, 2위가 「이탈리아」, 3위가 蘇聯으로 되어있다.

「유고」의외 보다 緊密한 接近試圖에는 日本外에 다른 歐美國家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經濟協力面에서 西方國에 크게 기대고 있어서 世界銀行에서도 많은 借款을 얻고있다.

한편 中共과의 間接的接近에서는 中共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아시아」 國家들과의 緊密한 유대가 우선 하여야 겠지만 東歐國中에서 中共전향인 「알바니아」는 通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61年 10月 蘇聯共産党大會에서 「호루시초프」(當時 第一書記)가 「알바니아」指導者를 「스탈린」主義者라고 非難한 이래 對蘇關係가 惡化되었고, 中·蘇對立이래 中共과의 關係는 親密해져서 66年 4月 「세프」 「알바니아」首相은 中共을 訪問했을때 蘇聯修正主義를 猛烈히 非難한 바 있다.

政治的으로도 中共전향이지만 經濟面에서도 中共과의 關係는 密着되어있다. 69年對 對外貿易總量中 中共과의 貿易이 70% 그 밖의 東部「유럽」國家와의 貿易이 25% (蘇聯과는 貿易關係가 없다) 西部「유럽」과의 貿易高가 5%로 되어있다. 註⑤

그중 非共産國國家中에서 主要交易 相對로는 「이탈리아」가 있다. 「알바니아」에서 輸入하는 主要品目으로는 곡물, 건축용시설, 農機具, 車輛, 機械, 석유류로 우리나라의 戰略 輸出品들을 浸透시킬 수 있는 品目이 包含되어 있다.

東歐國중에 中共과의 關係가 제대로 維持되는 나라중의 또하나가 「루마니아」로 이 나라는 일찍부터 西万接近을 試圖 67年 1月에 西獨과의 國교정상화를 이루었고, 70年度에는 美國, 「프랑스」, 西獨. 등 西万 國家에 수뇌를 派遣하는 한편 中共, 北韓에도 같은 時期에 수뇌를 보내며 多面外交에 積極的인 나라이다. 그러나 中共에 대한 貿易依存度는 「알바니아」보다 훨씬 낮고 主要輸入品目도 금속류, 유지, 식료품, 석유재료, 기계등으로 우리나라 商品이 浸透할 수 있는 목이 훨씬 제한되어 있고, 北韓과의 密接한 關係의 벽을 뚫기가 어려운 난점이있다.

그러나 蘇聯에 傾向된 東歐國家들과 中共 傾向의 東歐國家는 各기 國家間 關係에 있어서 성격이 다르다. 蘇聯과 東歐는 歷史, 地理 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알바니아」가 中共으로 기울것은 政治的인 이유가 으뜸가는 것으로 地理적으로도 먼 곳에 떨어져있고 歷史的 인증적으로 異質的인 것이다.

국교전교류가 시작되고 그것이 전진하는에는 地理, 歷史的인 側面의 영향도 적지 않은 比重을 차지한다는 것을 考慮해 넣어야 할 것이다.

註

註①：美「타임」誌 70年9月14日 21p

②：OECD 1972年 統計資料

③：1974年6月 「체코슬로바키아」駐在 日本大使 木本三郎의 發言

④：1974年6月 「유고슬라비아」駐在 日本大使 吉良秀通의 發言

⑤：統計數字는 日本共同通信発行, 世界 年鑑 73年号